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외대학보

957호 2013년 3월 6일 수요일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EEKLY www.oedaehagbo.com

새 출발하는 외대인들

사진 홍보실 제공

입학을 축하합니다!

2013학년도 신입생들이 입학했다.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신입생 선서를 하고 있는 서국선(영어 · 영어 13)군과 임주혜(영어 · 영통 13)양. 입학식은 지난달 20일(수) 올림픽홀에서 새내기 축제 한마당과 함께 열렸다. 이날 일가친척과 함께 입학식에 참석한 학부모 박미경(용인시 노정동)씨는 "'외대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는 말처럼 외대에서 글로벌하게 성장하고 성공하길 바란다"며 자녀의 입학에 기쁜 마음을 전했다. 입학을 마친 새내기 김연정(통번역 · 독일어 13)양도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다양한 외국어를 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쌀쌀한 날씨에도 빈틈없이 자리를 채워준 13학번 새내기들 덕분에 이날 입학식의 열기는 뜨거웠다. 앞으로 펼쳐질 새내기들의 푸르른 대학생활을 응원한다.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사진 양재상 기자

학위수여식, 그리고 떠나는 학생들

지난 달 22일(금) 우리학교에서는 대학원과 학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학위수여식을 열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대학원을 비롯한 각 단과대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됐다. 서울배움터의 경우 오바마홀을 비롯한 7개 장소에서, 글로벌배움터의 경우 세향관을 비롯한 8개 장소에서 11시와 2시 두 차례에 걸쳐 열렸다. 졸업생들은 학위수여식이 끝난 뒤 후련함과 섭섭함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최연지(글경 · 경영 08)양은 "취직과 졸업을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좋다"며 "재학 중일 때는 빨리 이 학교를 벗어나고 싶었는데 막상 졸업을 한다고 생각하니 학교가 애틋하게 느껴진다"고 말해 시원섭섭한 마음을 드러냈다. 졸업생들이 학교를 벗어나 더 큰 사회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가기 바란다.

양재상 기자 86haveaniceday@hufs.ac.kr

제1회 외대학보 학술대전 개최

학술계의 새 바람 몰고오나

외대학보사가 주최한 '제1회 외대학보 학술대전' 수상자가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지난 해 11월 30일(금)에 열린 시상식에 참가해 우수상 상금 30만원과 부상으로 총장명의의 상패를 수여받았다. 시상식은 서울배움터 총장실에서 열렸으며 △우리학교 박철 총장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전종섭 교수 △외대학보 전 편집장 강유나가 참가했다.

수상자는 △김상일(인문 · 사학 07) △정원필(영어 · 영어 07) △전병환(공과 · 컴공 09) 장영걸(공과 · 컴공 09)으로 총 3팀이다. 수상팀은 '출품된 작품이 심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본지의 심사규칙을 바탕으로 모두 공동 3위로 수상했다. 이날 수상한 김상일군은 "부족한 글이지만 수상해서 기쁘다"며 "논문작성에 도움을 주신 사학과 교수님들과 과선후배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1회 외대학보 학술대전은 여러 분야에서 공모하기로 했고, 그 취지에 맞춰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한 문학작품, 논문 등의 다양한 작품 10편이 들어왔다.

이번 학술대전의 심사는 심사위원으로 출품 분야별 전공교수 2인씩을 위촉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살렸다.

본지는 이번호 9~11면에 수상작 축약본을 수록하고, 12면에는 학보사 주간교수의 학술대전 심사평을 게재했다.

홍규원 기자 84kwhong@hufs.ac.kr

지면안내

2 총학생회 없는 대학교, 이번 보궐선거는?

7 오직 외대에서 국제통상, 이란어, 산업경영

8 당신의 한가닥은 소중합니다

9~12 학술제 수상작 및 심사평가

13 유투브 500만 조회 "레밀리터리블"

빈 의자

국 · 부장 고정칼럼

예나 지금이나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20대의 취업난의 심각성에 관한 기사들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 다음은 지난 1월과 2월 주요 일간지와 방송에서 취업난과 관련하여 보도된 기사들의 헤드라인들을 열거한 것이다. △20대 취업률 57%, 43개월만에 최저 △고용여건악화로 20대 취업률 8개월째 악화 △20대 취업 아직도 한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년실업에 관한 일간지들의 기사 제목은 대부분이 부정적이었다. 기사 내용 또한 지금 20대의 취업난이 그 어느 시기보다 문제가 되고 있고, 좀처럼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며 20대들이 현재 처해있는 실상에 대해 보도했다.

▲이처럼 지금 우리사회의 20대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다. 지난 달 22일(화) KBS가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2월 20대의 취업자 감소 폭은 약 10만명을 웃돌았다. 이 수치는 2년만에 가장 높은 감소폭이다. 20대 고용률 또한 2007년에 60%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 해인 2012년 말에는 60%보다 아래인 58.1%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가 지난 해 빚을 갚지 못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20대들의 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11년과 비교해서 4.2%나 증가했다.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청년실업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다 보니 일부에서는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원인을 사회로 지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들은 현재 청년실업률의 상황을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체제의 불합리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시말해 20대의 실업률이 이렇게 증가한데는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이 주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20대의 낮은 취업률을 비단 현재 우리사회의 흐름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지에 대해 다소 의문이 든다. '대졸 취업생 춥고 긴 겨울' '청년 4명 중 1명은 논다' 앞서 나열한 문장 두 개는 각각 1993년과 2003년에 일간지를 통해 보도된 기사들의 헤드라인들이다. 두 기사의 내용 또한 요즘 볼 수 있는 기사들의 내용과 대체적으로 비슷했다. 두 기사는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경제가 많이 침체돼 전체적으로 취업률이 낮지만 특히 20대의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임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같이 10년전, 심지어 20년 전에도 우리사회에서는 청년실업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다. 시대에 따라 물론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늘 20대는 시대를 막론하고 힘들고 불안한 존재다. 지금 우리의 어머니아버지도 우리나이에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며 그때 당시를 보냈을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 청년실업의 문제를 현재 우리사회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보며 각박해진 우리사회를 문제삼기 보다는,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

홍규원 부장

외대학보
2013년 3월 6일 수요일 957호

학내 브리핑

수강신청 변경기간은 8일까지, 잊지 마세요!

이번 달 4일(월)부터 8일(금)까지는 양 배움터의 수강신청 변경기간이다. 서울배움터에서 4일(월)은 1학년과 4학년이, 5일(화)은 2학년과 3학년이 수강신청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어 6일(수)부터 8일(금)까지는 전체학년이 수강신청을 변경할 수 있다. 한편 글로벌배움터에서는 4일(월)부터 8일(금)까지 전체학년 모두 수강신청 변경이 가능하다. 양 배움터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홈페이지의 '수강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FLEX 환불 제도 알고 있나요?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는 우리학교에서 개발한 외국어능력평가시험으로 각 학과의 외국어인증과 졸업인증에 사용된다.

외국어인증과 졸업인증을 위해 FLEX를 응시한 재학생이 실제 외국어인증을 FLEX로 한다면 7개의 언어 당 1회에 한해 응시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이 때 응시료를 환불해 주는 곳은 FLEX센터가 아니라 각 배움터 학사종합지원센터이므로 문의와 신청은 이곳을 통해 해야 한다.

이번 해 FLEX 시험일정

	접수기간	시험일
2회	04.11~04.17	05.12
3회	06.20~06.26	07.21
4회	11.01~11.07	12.01

나는 독립학부 국스레? 국지대 국스레?

지난 해까지 독립학부였던 국제스포츠레저학부가 이번 해부터 국제지역대학의 소속 학과로 개편된다. 지난 해 말 결정된 이 사안은 신입생모집요강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번 해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들부터 독립학부 국제스포츠레저학부가 아닌 국제지역대학의 국제스포츠레저학과 학생으로 적용된다. 한편 체육계열인 국제스포츠레저학부가 언어계열인 국제지역대학의 소속 학과로 개편됨에 따른 커리큘럼과 등록금 변화 여부에 관심이 뜨겁다.

만평 김경보 6

우리학교의 새로운 학생대표자를 선출한다

서울배움터, 이번 달부터 보궐선거일정 시작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번 달과 다음 달에 걸쳐 지난 해 무산된 총학생회장 선거에 대한 보궐선거를 진행하기로 했다. 학칙상 선거는 투표율을 정확하게 집계하기 위해 휴학생을 제외한 재학생들의 명단인 선거인명부 작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선거인명부가 작성된 후 선거가 다음 달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선거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이번 달 8일(금) 비대위에서 공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된 단과대학에서도 이번 달과 다음 달 안에 보궐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학기에 보궐선거를 진행하는 단과대학은 서울배움터의 △동양어대 △서양어대 △일본어대 △상경대 △영어대이다.

지난 해 11월과 12월에 걸친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 선거에서는 김상년(상경·경제 07)군이 총학생회장후보로, 정상호(서양어·스페인어 10)군이 부총학생회장후보로 입후보해 'Wel.Com.E' 선거본부만이 출마한 단독선거로 진행됐다. 그러나 당시 선거는 투표율이 단독선거로 진행될 시 선거가 성사되는 요건인 30%를 넘지 못하는 25.8%를 기록해 무산됐다. 또한 몇몇 단과대학 학생회장 선거도 투표율이 미달되거나 입후보한 학생이 없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지난 해 총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던 'Wel.Com.E'의 단독선거가 무산된 이유 중 하나로 후보들의 경험 부족과 그로 인한 공약준비미흡이 꼽힌다. 'Wel.Com.E' 선거본부는 학생회의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나서는 '평범함'과 '친근함'을 내세우며 소통과 재정투명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경험의 부족이 학칙에 대한 이해미흡으로 이어져 학칙위반으로 경고를 2회 받고 주의를 1회 받은 바 있다. 학칙에 의거하면 입후보한 선거본부는 경고를 3회 받을 경우 자동으로 사퇴하게 된다.

지난 해 11월 선거에 이어 이번 보궐선거도 무산될 경우에는 이번 해 11월에 다시 선거를 진행해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다음 선거가 진행될 때 까지 총학생회를 어떤 체제로 운영해 나갈지는 비대위에서 논의 이후 결정할 계획이다. 김범(국제 11) 비대위장은 "2011년과 2012년 연이어 11월 선거가 무산됨에 따라 3월 보궐선거까지 두 차례 비대위체제로 총학생회를 운영했다"며 "이번 보궐선거도 무산될 경우 그 이후 어떤 체제로 운영할 지는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총학생회의 운영이 축소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혀 이번 선거가 성사되기를 바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이자용(상경·경제 12) 상경대 비대위장도 "이번 보궐선거마저도 무산된다면 학생회의 집행력이 저하되고 학생들의 내부결속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재상 기자 86haveaniceday@hufs.ac.kr

우리학교 등록금 동결, 다른 대학은?

인상보다 동결·인하가 더 많아

이번 해 우리학교는 지난 1월 3차례에 걸쳐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열어 2013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에 이번 기사에서는 지난 956호에 이어 사회적인 대학의 등록금 동결 및 인하의 추세에 대해 알아봤다. 그 결과 타 대학의 경우도 이번 해는 등록금을 인상하기보다 동결 또는 인하한 경우가 더 많았다.

2013학년도 등록금을 동결 및 인하한 대학교는 전국 대학의 약 94%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우리학교를 비롯해 △인하대 △건국대 △선문대 등의 학교이며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은 △연세대 △이화여대 △부산대 등의 학교인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들도 그 인하율의 수준이 평균 0.5%으로 1% 내외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왔다. 연세대는 0.8%, 이화여대는 1.5%, 부산대는 0.2%를 인하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연세대의 경우는 등록금심의 초기에 교직원 호봉과 유류비 문제를 들어 2.4%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학생들의 반발로 등록금을 0.8%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해 대학들이 대부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더라도 그 인하율이 1%내외의 수준에 머무른 것은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이 개정됐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2013학년도 국가장학금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2유형 사업에 대학이 지원하기 위해 '등록금 동결·인하 또는 장학금 확충 등의 자체노력 규모가 지난 해의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는 지난 해에 국가장학금 지원의 척도로 '등록금 5% 인하'를 내세운 것과 대비된다.

양재상 기자 86haveaniceday@hufs.ac.kr

iBT-FLEX로 바뀌는 실용영어 반편성 진단평가

이번 해부터 글로벌배움터 신입생들의 실용영어 반편성 진단평가가 모의FLEX에서 iBT-FLEX로 바뀐다. iBT-FLEX는 개인이 원하는 시간과 날짜를 선택해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점에서 정해진 날짜에만 치를 수 있었던 지난 해 실시한 모의FLEX와는 차이가 있다.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포함해 총 7가지를 대상언어로 하며, 우리학교가 세계 다양한 언어에 대한 사용능력을 한국인에게 가장 적합하고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자체적으로 개발한 외국어능력시험이다. 이에 기반한 iBT-FLEX는 인터넷을 활용한 FLEX의 차세대 시험으로 국내 최초로 대학생의 실용외국어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학교 재학생은 FLEX가 701점 이상인 경우 실용외국어 학점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각 학과마다 FLEX를 이용해 외국어인증과 졸업인증을 하고 있다.

신입생들은 우리학교에 입학하면 실용영어 과목을 필수로 수강해야 한다. 글로벌배움터의 경우 실용영어는 △진리 △평화 △창조의 세 가지 반으로 나뉘며, 1학기 때는 수능 외국어영역의 성적에 따라 반이 편성됐다. 하지만 2학기부터는 진단평가시험을 치른 뒤 반편성을 한다.

이번 학기부터 실시되는 iBT-FLEX 시험은 응시료가 무료이며 시험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는 실용영어수업을 면제해준다.

반편성을 위한 이 진단평가는 iBT-FLEX의 △스피킹(speaking) △라이팅(writing) △리스닝(listening) △리딩(reading)의 4개 영역 중 리스닝과 리딩만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이진환 외국어교육센터 책임연구원은 "외국어 교육의 메카인 우리학교에서 수준별 영어 수업은 의의가 있고, 좀더 정확한 진단평가를 위해 실제 iBT-FLEX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실용영어의 반을 편성하는 iBT-FLEX 접수는 다음 달 15일(월)부터 26일(금)까지 FLEX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iBT-FLEX 시험은 다음 달 29일(월)부터 공학관 전산실에서 치를 수 있다.

이민정 기자 86cosmos@hufs.ac.kr

2013년 입학식 축사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존경하는 학부모님!

글로벌 인재양성의 산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일원이 된 여러분에게 외대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지금 저를 비롯한 모든 외대 구성원들은 새 식구를 맞이한 기쁨과 함께 여러분의 교육과 장래에 대해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는 1954년 "진리, 평화, 창조"의 교훈을 표방하며 개교 이래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발전에 기여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였습니다.

외대가 자랑하는 글로벌 파워는 전 세계 80개국 500여개의 교류대학 및 기관, 지구촌 곳곳에 펼쳐져 있는 광범위한 동문 네트워크, 그리고 국내외 대학평가의 국제화 분야 부동의 1위라는 사회적 평판 등을 통해 이미 대내외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외대는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외국어 교육기관입니다. 세계 각 45개국 외국어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언어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강의 및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언어를 바탕으로 한 인문, 사회, 경상, 법정, 이공계 등 주요 학문 분야 사이의 소통과 융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진정한 글로벌 정신과 풍부한 국제화의 노하우를 지닌 외대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7+1 파견학생>과 <교환학생제도>, <외교통상부·코트라 재외공관인턴십>, <해외홍보문화원 인턴십> 등 외대에만 구비된 다양한 국제교류시스템에 의해 여러분 누구나 재학 중 한 학기 이상을 해외에서 수학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전공을 더 이수하는 <이중전공제도>와 <복수전공제도>를 통해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헤쳐나갈 폭넓은 전문성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외국어졸업인증제도>로 2개 이상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지난 수년간 우리 대학은 여러분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1년에 완공된 서울캠퍼스의 최첨단 지하복합시설인 <미네르바 콤플렉스>에는 체육관과 강당, 세미나실과 피트니스센터 등 여러분의 학습과 복지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글로벌캠퍼스의 <제2기숙사>는 단순한 거주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체득할 수 있는 글로벌 학습체험장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글로벌캠퍼스에는 신본관이, 서울캠퍼스에는 사이버대학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최첨단 학습 및 복지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학교는 여러분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여러분에게 많은 땀과 노력을 요구할 것입니다. 제도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꿈을 이루어내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실천적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열정을 지닐 것을 당부드립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면학자세, 자아와 세상에 대한 진지한 성찰, 가족과 이웃, 친구와 동료에 대한 사랑과 우정,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따스한 관심 등 숭고한 실천적 가치들의 기저에는 식지 않은 열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열정은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 지식인의 의무입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학교에 입학시킨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학부모님께서도 우리 외대의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자녀들이 능력과 책임감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 그리고 질타를 아끼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의미있고, 가장 좋은 추억으로 남을 대학생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외대를 만나면 세계가 보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글로벌 인재로 나아가는 문을 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2월 20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문학박사 박 철

양 배움터 중운위 회의록 공개

체계적인 공개 위한 노력 필요

현재 서울배움터는 지난 해 선거무산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글로벌배움터는 34대 총학생회 채움이 학생대표단으로 이끌고 있다. 총학생회는 매주 단과대학(이하 단대)학생회장들과 몇몇의 자치단체장들로 이뤄진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서 총학생회장단과 단대장들은 학내사안에 대해 논의를 거치게 된다. 이후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까지 논의가 확대된다. 확운위는 중운위 구성원을 포함해 각 학과의 학생회장들이 참여한다. 이후 확운위를 거친 논의사항은 한 학기마다 있는 전교생이 함께 의결하는 학생정기총회의 안건으로 인준된다. 이렇듯 중운위 회의는 학내 전체 사항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회의이다.

국회에서 가장 기본인 본회의의 회의록은 인터넷을 통해 국민이라면 누구나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학교에서는 가장 기본이라는 회의에 일반 학생들의 접근이 가능한지 알아봤다. 이에 앞서 본지는 양 배움터 중운위에 기자 및 일반 학생의 참관 여부를 물었다. 서울배움터의 경우 개교이례 거르지 않고 중운위 회의에 관례적으로 참관했다. 반면 글로벌배움터의 경우 총학생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져 지난 해 불참했다. 때문에 이번 해 참관을 위해 중운위 구성원들과 브리핑을 가졌으나 다수결에 의해 참관 요청이 거절됐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중운위 회의록에 대한 접근은 어떨까. 김범(국제 11) 서울배움터 비대위장은 "현재 서울배움터의 중운위 회의록은 http://hufster.com에 게시돼 회원가입을 통하지 않고서도 열람 가능하다"고 말했다. 글로벌배움터는 이번 학기부터 총학생회의 공식 홈페이지인 http://hufstory.com을 통해 회원가입과 인증절차를 거친 후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 중운위 회의 내용 녹취의 경우 서울배움터는 하지 않고 있다. 전형근(통번역 · 영어 08)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장은 "글로벌배움터 중운위에서는 회의 내용을 녹취하고 있으며 학생의 요청에 따라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울배움터의 홈페이지에는 2월 28일(목)까지 올라온 회의록은 하나도 없었다. 이에 대해 김범 비대위장은 "현재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고 있지 않다"며 "회의 안건지에 필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회의록을 이번 달 중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글로벌배움터의 경우 현재 올려져 있는 회의록은 2차 회의록부터 지난 달 6일(수)에 있었던 6차 회의록까지 총 5개이다. 목미진(동유럽 · 폴란드 11)양은 "1차 회의록과 6차 회의 이후의 회의록에 대해 궁금하다"며 "회의록을 공개하며 투명한 운영에 대해서는 반갑지만 중운위 회의록 공개에 대한 홍보나 정보전달에 대해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위 사진을 서울배움터 비대위 홈페이지이며 지난 달 28일(목)까지 아무런 중운위 회의록이 없다. 아래는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 홈페이지이며 같은 날 5개의 회의록이 게제되있다.

신민지 86hufspress86@hufs.ac.kr

▲위 사진은 지난 2011년 여름 산사태 피해를 입은 변전실의 모습, 아래 사진은 이번 해 자리를 옮긴 학생회관 지하 변전실의 모습.

학생회관 변전실 및 중앙로 가로등 보수…

안정적이고 안전한 전기 공급 가능해

우리학교 글로벌배움터는 지난 2011년 수해로 인한 산사태로 정문부터 인문 · 경상관까지 이어지는 중앙로가 모두 파괴됐다. 그 피해로 인해 파손됐던 학생회관 변전실과 중앙로 가로등 보수공사가 각각 완료, 진행 중에 있다.

변전실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한 전압을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압으로 강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각 건물마다 설치돼있다. 지난 2011년 7월에 발생한 산사태로 글로벌배움터 학생회관은 건물 뒤편에 있던 변전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때문에 지난 해 학생회관의 경우는 도서관의 변전실을 임시로 사용했다. 이로 인해 지난 해 학생회관의 전기 공급은 불안정했으며 그로 인한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이은재 글로벌배움터 시설관리팀 담당자는 "하나의 변전실이 도서관과 학생회관 두 건물의 전기 공급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중앙로 지하 매설관도 지난 수해로 훼손됐다. 이에 중앙로 가로등의 내부 설비도 타격을 입었다. 결국 가로등은 임시로 정문에서부터 지상으로 전선을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해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 역시 매설관 훼손과 노후로 누전이 자주 발생해 감전과 몸체가 기울어지는 등의 위험이 있었다.

이에 지난 해 11월 19일(월)부터 학생회관 지하변전실 신설공사와 중앙로 가로등 복구공사가 이뤄졌다. 변전실의 경우 옥외에서 학생회관 지하 1층 한알 동아리방의 일부로 자리를 옮겼다. 조미애(자연 · 환경 11) 한알 동아리회장은 "동아리방이 작아져 연습 시 조금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학생회관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중앙로 가로등 복구공사도 지난 11월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이번 겨울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공사가 중단돼 부득이 준공 일정이 연기됐다. 이은재 담당자는 "현재 예상 준공일은 이번 달 20일(수)이나 날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신민지 86hufspress86@hufs.ac.kr

사 령

임

편집장 문나윤(국제지역 · 중앙아시아 11)

부 장 홍규원(동양어 · 이란어 11)

차 장

박준서(통번역 · 중국어 12) 신민지(통번역 · 태국어 11) 양재상(상경 · 경제 12) 이민정(통번역 · 중국어 12) 이은결(동양어 · 터키어 12) 임채윤(동양어 · 몽골어 11)

조 교 이현주(일반대학원 · 언어인지)
정진경(상경 · 국통)

임기만료

강유나(영어 · 영어 11)

면

우보연(동유럽 · 세크어 11) 권수정(서양어 · 이탈리아어 12) 김경보(통번역 · 중국어 12) 김정원(국제 12) 홍진아(사회 · 정외 12)

우리학교 숨어있는 배움터?

유용한 학내 프로그램을 알아보자

"'학교에 이런 곳이 있었어?'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김현숙 서울배움터 경력개발센터 팀장이 학내 유용한 진로개발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실태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팀장은 "학내에 무료로, 상시로 진행하는 좋은 진로개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학생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한다"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이에 본지는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학내에 존재하고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들을 독자들에게 소개하려한다. 지금부터 그 구석구석을 살펴보자.

◆서울배움터 경력개발센터

우리학교 경력개발센터에서는 현재 학생들의 체계적인 취업지도를 위해 각종 경력관리 및 취업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취업지원관 상담과 같이 상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도 많지만 기간이나 횟수가 고정된 프로그램들도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미리 숙지해두고 제때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당장 이번 달부터만 해도 채용설명회, 직무적성검사 등이 실시될 예정이니 새내기들은 물론 재학생들 또한 눈여겨봐야 할 시기이다.

· HUFS CAP 프로그램

연 2~4회 하계 및 동계 방학 중 진행되는 저학년 대상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특성을 찾아 취업준비에 임할 수 있도록 전문강사를 초빙해 △직업탐색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취업 캠프

연 4회 진행예정의 취업 캠프이다. 학생들은 약 2박 3일의 캠프 기간 동안 취업에 관련한 각종 특강과 실습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해 실시된 취업 캠프에서는 △채용시장 분석 △이미지메이킹실습 △유형별 면접 전략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및 인성 특강 등이 열렸다.

· 취업 스터디 지원

매 학기 개강 전에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개인 또는 단체별 지원을 받으며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한다. 선정된 그룹은 전문 취업컨설턴트와의 집단상담 및 Job Cafe 시설 대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지현(영어 · 영교 12)양은 "임용고시에 응하긴 할 것이지만 취업을 위해 스펙도 쌓고 싶다"며 "취업 캠프에 다녀오면 취직에 성공한 선배들은 어떻게 스펙을 쌓았는지 들을 수 있고 학과 추천자에 들었다는 사실 자체도 대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걸 보여주니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경력개발센터에 더욱 바라는 점으로는 "공모전에 입상했던 선배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꼽았다.

◆ 서울배움터 국제교류팀

서울배움터 국제교류팀에서는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튜터링 프로그램이 주목할 만하다. 지난 해에 이어 이번 2학기에도 운영될 예정인 'Foreign Language Tutoring Program'이다.

· Foreign Language Tutoring Program

매 학기 9월 말 ~ 12월 초 진행되는 튜터링 프로그램이다. 신규 입학하는 교환 및 방문학생에게 지원을 받아 재학생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해에는 튜터 학생 15명, 본교 재학생 100명 내외로 운영이 됐다.

· 외국인장학생 멘토프로그램

이번 달 말부터 12월 초까지 10주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인 멘토프로그램이다. 신입학 예정인 외국인장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 재학생 추천인들이 멘토링을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 입학 예정인 외국인장학생은 17명으로 이들의 학교 적응 및 학업을 위해 1:1 지도를 실시한다. 멘토로 활동하는 본교생은 학기 당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받는다.

◆글로벌배움터 외국어교육센터

우리학교 글로벌배움터에는 △어문관 △기숙사 △공학관의 3곳에 잉글리쉬존이 위치하고 있다. 잉글리쉬존은 캠퍼스 내에서 영어만을 사용하는 공간이며, 이곳에서는 <News in Print>, <Job Interview>, <Watch Current Events on TV> 등 원어민 강사들의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한 이곳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영어 에세이반과 영어 토론단은 지난 해 2학기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사전 작문테스트나 사전 인터뷰가 필수이며 이번 달 7일(목)까지 외국어교육센터(본관 203-1호)로 방문해 예약접수할 수 있다. 인터뷰와 시험을 통해 선발된 학생은 원어민 교수님과 함께 한 학기 동안 무료로 영어 토론, 영어 글쓰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영어 에세이반

학생들에게 영어 작문에 두려움을 없애주고 수준 높은 영어 작문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원어민 교수의 지도 아래에 집중적으로 영어 작문방법을 익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전에 작문테스트 결과와 지원자들의 참여가능시간을 고려해 각 반별로 10명씩 4개반이 개설돼 총 40명을 선발하고, 1주일에 1번 자신에게 배정된 1개의 수업만 참여할 수 있다.

· 영어 토론단

학생들이 영어 토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고급 영어 토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원어민 교수의 지도 아래 집중적인 영어 토론법을 교습하는 이 토론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원어민 인터뷰가 필수다. 인터뷰 예약은 지난 달 25일부터 이번 달 7일(목)까지이며 인터뷰는 이번 달 11일(월)부터 14일(목)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각 반별로 10명씩 5개의 반이 개설돼 총 50명을 선발하며 1주일에 1번 자신에게 배정된 1개의 수업만 참여할 수 있다.

· 영어 클리닉

영어클리닉은 학생들의 개인적인 영어 학습의 어려움들을 일대일로 상담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법과 독해에 대한 질문 뿐 아니라, 영작문의 일부를 교정 받을 수 있고, 영어 발표나 과제 준비에 대한 방향을 조언 받을 수 있다. 원어민 교수의 교육은 작문 첨삭과 취업인터뷰를 중점적으로 한국인 교수의 교육은 △영어학습방법상담 △문법/독해 등 튜터링 △영어과제 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진환 외국어교육센터 책임연구원은 "사전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 학생들이 겁을 먹어 참여자가 저조한 경우도 있다"며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외국어교육센터 홈페이지(http://flec.hufs.ac.kr/)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이민정 기자 86cosmos@hufs.ac.kr

출처 인사혁신팀

반가워요 외대 여러분!

이번 해 우리학교에 12명의 신입직원들이 임명됐다. 왼쪽 위부터(오른쪽으로) △대학원사무1팀 박희성 △발전협력팀 홍준형 △국제교류팀 이희승 △국제학생지원팀 주재환 △FLEX센터운영팀 최영욱 △재무회계팀 최지혜 △IT인프라팀 교수학습개발원 정정은 △(글)국제사회교육원 이정목 △(글)학생감동팀 홍성인 △교무행정팀 박상희 △다문화교육원 김재민 △(글)교무행정팀 문영훈이다.

이민정 기자 86cosmos@hufs.ac.kr

earTheme

내가 느낀 한국, 들어볼래?

우리학교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 생존기!

우리학교 교정을 거닐다 보면 외국인 학생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어딘가를 가려고 바삐 움직이는 외국인 학생들, 국제학사 근처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까지. 그러나 가끔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외국인 유학생들만의 세계가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낯선 타지의 땅인 한국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일상생활은 어떨까?

▲데이빗 킨투(David Kintu), 우간다, International Development Studies

안녕하세요 데이빗(David)씨. 한국에는 어떻게 오게 된 거죠?

한국은 지금 우간다보다 일인당 소득이 거의 40배가량 높아요. 1960년대에는 한국과 우간다의 일인당 소득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한국이 짧은 시간에 급격한 성장을 한거죠. 한국이 어떻게 이러한 발전을 할 수 있었는지 △한국의 리더쉽 △교육에 대한 투자 △인프라에 관심이 있어서 오게 됐어요.

한국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한국의 나이 많으신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소통에 있어서 젊은 세대들 보다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그분들은 지금의 한국의 발전성과를 보여준 장본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국제학생 코디네이터 △국제교류팀의 은지 △교회 △교수님 △KOICA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기억에 남네요.

위데드(Wided)씨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생활하기 어때요?

저는 2010년 9월부터 한국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나 마음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힘들었어요. 해고도 당해본걸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해하게 됐어요. 요즘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아주머니들이 항상 엄마처럼 "밥 먹었니?", "어려운 점은 없니?"를 자주 물어봐주시고 잘 대해 주셔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극한의 기쁨과 극한의 슬픔을 잘 표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목표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표가 있으면 다른 일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점들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존경해요

▲위데드(Wided), 튀니지, 한국학과 국제지역 대학원생

▲응웬 트란 푸엉 타오(Thao), 베트남, 국제관계 대학원생

기억에 남는 한국 문화에 대해 말해주세요.

한국의 "잘 다녀올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인사가 인상깊었어요. 베트남에서는 나갈 때, 식사할 때 인사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갈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한국에는 줄서기 문화가 잘 발달돼있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음식을 사려고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는 모습과 화장실, 버스 정류장에서 질서정연한 모습을 많이 봤어요.

한국에 와서 적응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나요?

네 있어요. 첫 번째는 지하철이에요. 베트남에는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지하철을 타는 것이 정말 당황스럽고 무서웠어요. 처음에 엄청 헤맸는데 지금은 헤매지 않고 잘 타게 됐어요. 두 번째는 '빨리빨리' 문화에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팀장님의 빨리빨리에 충격받고 얼마 안돼서 직장을 그만뒀죠. 나중에 한국에서의 취직을 하고 싶은데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걱정이네요.

이민정 기자 86cosmos@hufs.ac.kr

세계 브리핑

난항 겪는 이탈리아 총선

출처 REUTERS 통신

▲이탈리아 총선이 혼돈의 결과를 빚으며 재선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달 25일(월) 이탈리아 총선 결과,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어 정부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중도좌파 연합의 민주당이 하원에서는 과반을 확보했으나 상원에서는 과반을 못 넘어 국정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이탈리아는 상·하원이 동등한 권한을 갖는 양원제 국가로 정부 구성을 위해서는 양원 모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의 연립정부 구성도 불투명해 재선거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이탈리아의 총선 결과에 따라 유럽 증시는 물론 국제 금융시장도 술렁이고 있다.

카스트로 정권, 세대교체 향하나

출처 AFT 통신

▲다시 선출된 라울 의장이 5년 뒤 물러날 것을 약속했다.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난 달 24일(일) 차기 의장으로 재선됐다. 라울 의장은 이날 열린 쿠바 국회에서 "이번이 마지막 임기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두 번째 임기가 종료되는 2018년을 끝으로 권력을 이양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또한 "미래의 국가를 젊은 세대에 점차 넘겨가는 단계에 있다"고 말하며 쿠바 정권의 세대교체를 암시했다. 1959년 쿠바 혁명에 참여하지 않은 포스트 혁명 세대인 미겔 디아스카넬 전 교육장관을 수석부의장으로 임명하고 혁명 1세대 중 일부가 자리에서 밀려난 등 세대교체의 첫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피델 카스트로에 이어 약 반세기 넘게 장기 집권한 형제정권이 막을 내리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스리랑카 내전은 끝나도…인권유린 다시 고발당해

지난 달 26일(화)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 2006년부터 2012년 스리랑카 정부군이 타밀족에 저지른 강간 등 고문 행위를 밝힌 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군이 내전 당시는 물론 내전이 끝난 직후에도 반군을 지지한 혐의로 억류했던 타밀족들에게 자백을 끌어내기 위해 심한 고문을 자행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에는 스리랑카 정부군에 억류돼 지속적으로 강간 및 고문당했다고 증언한 타밀족 남녀의 증언 75건을 수록했다. 이들은 의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스리랑카 정부는 묵살하고 있는 상태다. 이 보고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스리랑카 내전 종식 무렵의 인권실태와 관련해 논의될 예정이다.

번역·정리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훕스토리 Hufstory

양재상 기자

한국어

개강 후 건물 찾아가기

A : 실례합니다. 지금은 몇 시인가요?

B : 네, 지금은 1시 50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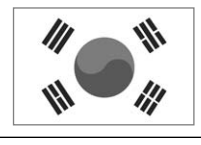
A : 아 그런가요? 곧 수업이 시작하겠네요.

B : 혹시 길을 찾고 계신가요?

A : 네, 인문관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B : 저도 그 쪽으로 가는 길인데, 같이 가실래요?

A : 네, 같이가요.



독일어

A : Entschuldigen Sie. Wie sp?t ist es jetzt?
엔트슐디겐 지. 비 슈팻 이스트 에스 예츠트?

B : Es ist zehn vor zwei.
에스 이스트 첸 포어 츠바이.

A : Ach ja? Bald f?ngt die Vorlesung an.
아흐 야? 발트 팽트 디 포어레중 안.

B : Suchen Sie vielleicht den Weg?
죽헨 지 필라이트 덴 벡?

A : Ja, Wie komme ich zum Geb?ude 1?
야, 비 콤메 이히 춤 게보이데 아인스?

B : Ich bin auch auf dem Weg dahin. Wollen Sie mitkommen?
이히 빈 아우흐 아우프 뎀 벡 다힌. 볼렌 지 밋콤멘?

A : Ja, ich komme gern mit.
야, 이히 콤메 게안 밋.

* 번역자 : 김호진(일반대학원 석사과정 12)
* 검수자 : 이정현(일반대학원 박사과정 12)

아랍어

لو سمحت، كم الساعة الآن؟
라우 사마흐타, 카밋싸아투 알아나?

الساعة الآن الثانية إلاّ عشر دقائق.
앗싸아 알아나 앗싸니야 일라 아슈라 다까이끄

فهمت. سيبدأ الدرس قريبًا، إذن.
파힘투. 싸야브다우 앗다르수 까리반, 이단.

هل تبحث عن مبنى معين؟
할 타브하쑤 안 마브나 무아이얀?

نعم. كيف أذهب إلى مبنى العلوم الإنسانية؟
남. 케이파 아드하부 일라 마브날 울룸 인싸니야?

أنا أنضًا أذهب إليه. هل تذهب معي؟
아나 아이단 아드하부 일라이히. 할 타드하부 마이?

نعم. أريد أن أذهب معك.
남. 우리두 안 아드하부 마아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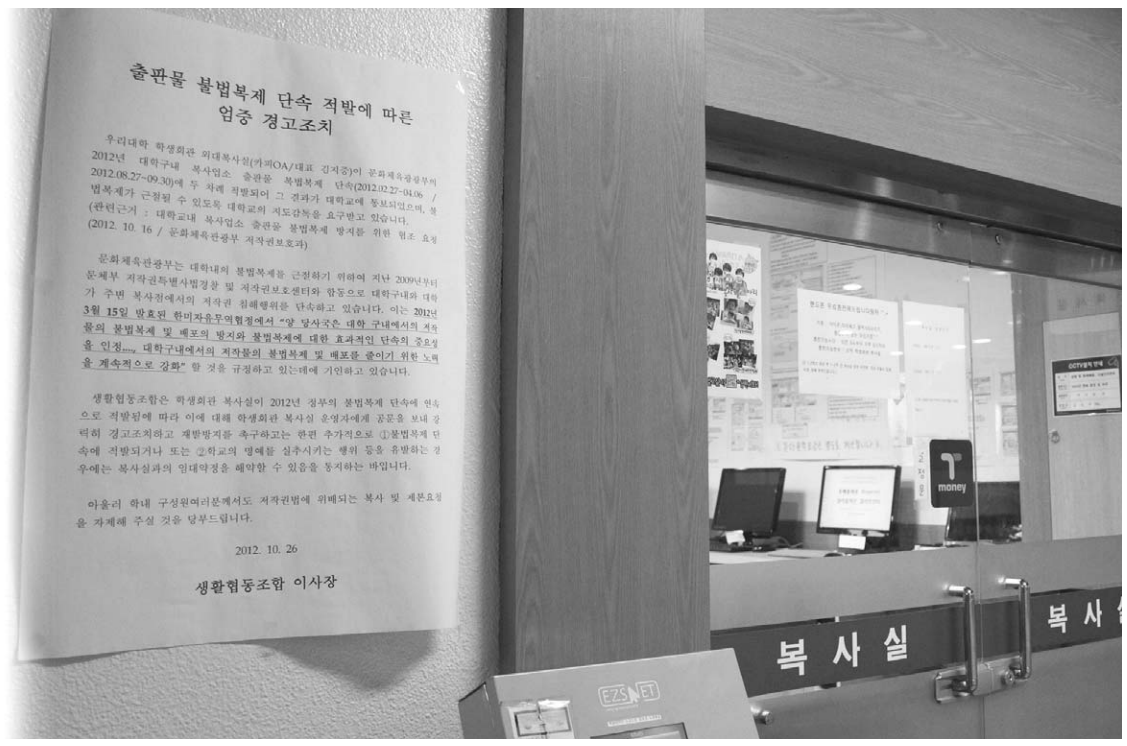
* 번역자 : 박세경(일반대학원 석사과정 13)
* 검수자 : 박재원 교수

외대학보
2013년 3월 6일 수요일 957호

수업시간의 유인물에도 사용료가 필요하다?

대학교 수업자료의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다

학교에서 받는 수업에 항상 따라붙는 유인물과 동영상들. 우리들은 그 자료들을 누구의 것인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채 사용한다. 하지만 이 자료들은 대부분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 하나의 저작물들이다. 지난 8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저작권협회)는 전국 6개 대학을 상대로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 소송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저작권법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알아보는 기획을 준비했다.



◆너도나도 거리낌없이 복사하는 자료들, 이젠 전체를 복사할 수 없다?

개강한 뒤 몇 주간은 수업자료를 복사하거나 교재를 제본하려는 학생들로 복사실이 붐빈다. 그런데 지난 학기부터 글로벌배움터 복사실 옆에 공고문이 붙었다. 공고문의 제목은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적발에 따른 엄중 경고조치' 지난해 복사실에서 학생들이 저작물에 대한 불법복사를 한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두 차례 적발돼 붙은 경고문이었다. 장두봉 우리학교 인쇄 · 복사실 관계자는 "우리 복사실은 달마다 저작권협회에 회비를 내고 저작물의 10%는 복사할 수 있도록 허락받고 있다"며 "모든 유 · 무형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존중되야 하지만 수업에 지장이 갈 경우 학생들이 겪을 불편함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수업에 사용하는 자료들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규정돼 있으며 그 권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그 권리의 관리

우리나라는 1957년부터 저작권법을 제정한 뒤 시행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조항 중 대학교에서 수업자료로 활용되는 저작물과 관련된 조항은 25조이다. 저작권법 25조 3항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다만 저작권법 25조 4항 및 5항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려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문체부에서 저작권협회에게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해 저작권료를 대리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협회는 지난 2000년 설립된 이후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위탁받아 사용료를 대리로 수령해 저작권자에게 배분하는 단체이다. 또한 교육기관의 수업자료 이용에 대한 보상금을 징수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수업자료 사용료에 대한 대학과 저작권협회의 갈등

하지만 현재까지 대학교측은 관행적으로 저작권료 지불없이 수업에 쓸 교재를 복사하고 동영상을 상영해왔다. 또한 저작권협회에서도 이를 관행적으로 묵인했다. 그러나 점차 저작권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과 저작권협회는 수업자료의 사용료 징수에 대한 협의를 3년간 진행했다. 하지만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이에 지난 8월 저작권협회는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북대 △명지전문대 △서울디지털대 6개 대학을 상대로 저작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금액은 총 2억 5000여 만원에 달하며 이는 소송대상인 대학의 정원에 저작권 보상금 1879원을 곱한 금액이다. 저작권협회 측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한 금액은 문체부가 50개 대학을 상대로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금액"이라며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다른 대학을 상대로도 보상금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1879원은 문체부에서 지난 해 발표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서 고시된 일반대학교 학생들로부터 일괄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최소금액이다.

현재 저작권 사용료, 국가 지정 단체서 징수
저작권협회 "그동안의 관행 개선 필요"
대학 "책정된 사용료는 근거가 빈약"

◆사용료 지급에 대해 대학은 난색

대학교 측은 저작권협회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난감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소송대상인 서울대 법무팀 관계자는 "지난 2011년 저작권협회의 저작권자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분배율은 38%로 매우 낮았다"며 "저작권법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단체로서의 요건을 저작권협회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이들이 제기한 소송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는 단체는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현재 저작권협회는 분배율이 매우 낮아 저작권료를 대신 수령하는 단체로써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 소송의 대상이 된 대학들은 문체부에서 발표한 고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시에서는 저작권 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자료의 사용량에 비례해 납부할지 학생 수당 일정 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납부할지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다. 대학 측의 의견은 이 규정이 자의적이며 산정된 금액도 그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서울대 법무팀 관계자는 "저작권협회에선 복사권과 전송권을 주로 관리함에도 저작권 사용료로 산정된 금액을 살펴보면 이 권리들 외에 공연 및 방송과 관련된 권리까지도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초과징수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 산정된 것 같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대학 측은 모든 교수들이 저작권협회에 저작권을 신탁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교수는 저작권을 관리하는 다른 협회와 권리가 중복으로 신탁이 돼있어 학생들에게 저작권 사용료로 일괄적인 금액을 산정하고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대두되고 있는 저작권의 중요성, 그리고 그에 따른 소송

최근까지 대학교에서 수업자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관행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던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의 중요성이 그다지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 하지만 문화컨텐츠가 중요사업으로 떠오르고 저작권법이 강화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 때문에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에서도 그동안 진행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다. 스타벅스 한국지사는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본사와 음악서비스계약을 맺은 플레이네트워크가 제작한 CD를 구매해 매장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CD에 수록된 음악 중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있어 저작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스타벅스 한국지사는 자신들이 대가를 바라고 음악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반론을 펼쳤다. 소송은 2심까지 간 결과 스타벅스 한국지사가 배경음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확정됐다. 저작권과 관련된 강의를 하는 한 전문가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배경음악을 듣지 못한다는 점이 아쉬울 수 있으나 저작권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이 판결은 바람직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한편, 대학생들은 지난 8월 제기된 소송에 대해 저작권 보장의 문제와 대학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쟁점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에 입장을 정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경민(사회 · 자전 12)군은 "저작권을 존중해주는 것도 좋지만 대학이라는 교육의 현장에서 지적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했다. 김범(국제 11) 서울배움터 비상대책위원장도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교수님들도 학생들의 형편을 알기에 교재를 제본하는 것을 넘어가주고 '자신의 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알아만 둬라'고 하시는 것을 본적이 있다"면서 한 쪽으로 입장을 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소송 또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소송과 함께 저작권에 대해 변화한 의식을 보여준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과 관련된 강의를 하는 한 전문가는 "사람들의 의식이 성숙하면서 과거에 교육을 이유로 행해졌던 저작권 침해의 관행에 대해 개선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소송을 제기한 측의 주장이나 소송 대상의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선진화된 문화컨텐츠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재상 기자 86haveaniceday@hufs.ac.kr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1항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2항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 배포 · 공연 ·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3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4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 · 배포 · 공연 · 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5항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우리나라 저작권법 중 수업자료 사용과 관련된 25조의 일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납부자	이용형태	산정방식 및 납부 기준액 (납부자가 아래 방식 중 선택)	
		종량방식	포괄방식
대학교	저작권법상 복제 · 배포 · 전송 · 방송 공연 (단, 중복 산정하지 않음)	○ 어문: A4 1쪽 분량당 7.7원 – 파워포인트는 1매당 3.8원 ○ 이미지: 1건당 7.7원 ○ 음악: 1곡당 42원 ○ 영상물: 5분 이내 176원 * 어문 저작물의 1% 이내, 음악 및 영상 저작물의 5% 이내(최대 30초) 이용의 경우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	종량방식 기준에 기초하여 수령단체와 납부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되, 포괄산정에 따른 비용절감과 연차별 조정계수 (2014년까지 할인)를 감안하여 학생 1인당 연간 기준금액은 다음을 참고함. ○ 일 반 대 1,879원 ('11)~3,132원 ('15) ○ 전 문 대 1,704원 ('11)~2,840원 ('15) ○ 원격대 1,610원('11)~2,684원('15)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때의 보상금 기준 (출처 : 문체부고시 제2012-18호)

외대의 빛나는 삼과삼색(三科三色)

새 학기를 맞이하며 본지는 우리학교를 자랑할 만한 특색 있는 학과들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우리학교에서 △가장 인기 많은 학과 △취업률이 좋은 학과 △국내 유일한 학과들 중 각각 한 과를 선발했다. 인기가 많은 학과로는 서울배움터의 국제통상학과, 취업률이 높은 학과로 글로벌배움터의 산업경영공학과, 우리학교에만 존재하는 유일한 학과로 서울배움터의 이란어과를 선정했다. 각 과들은 자체노력으로 명성을 일궈내기도, 유일무이한 가치를 쭉 지켜오기도 했다. 저만의 멋을 가진 세 학과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새 학년에 오르는 우리의 비전도 크게 키워보는 것은 어떨까.

끊임없는 성장세

국제통상학과

우리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학과 중 하나를 꼽는다면 단연 국제통상학과를 뽑을 수 있을 것이다. 상경대학에 속한 국제통상학과는 외국어 · 국제법 · 경제에 능통한 통상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다. 우리학교 국제통상학과는 입학하기 위해 쟁쟁한 경쟁을 뚫어야할 뿐만 아니라 재학생들 사이에서도 이중전공으로 선망되는 학과다. 최근 조선일보에서도 주목할 만한 학과로 우리학교의 국제통상학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우리학교 내 다양한 언어학과와 이중전공을 했을 때 더 큰 상승효과를 내는 국제통상학과, 과연 어떤 특별한 강점을 지닌 것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임현호(상경 · 국통 10) 국제통상학과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학과가 자타가 공인하는 외대의 간판학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현재 상경대학장을 맡고 계신 임기영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훌륭한 교수님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겸손히 자부심을 드러냈다. 1963년 무역학과로 개설했던 학과는 변화하는 국제통상환경에 맞춰 2005년 학과명을 현재의 국제통상학과로 변경하며 커리큘럼에 대폭적인 개편을 시도했다.

김민녕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일반 실무무역 위주의 기존 커리큘럼에서 탈피해 국제법 관련 과목을 다수 신설하는 등 과목 개발과 연구에 많이 투자를 했다"며 "우리학과는 전세계적으로도 특별한 커리큘럼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 여느 학과들보다도 빠르게 변화한 국제통상학과의 성장 요인은 무엇일까?

박상원 국제통상학과장 교수 또한 커리큘럼의 대대적인 개편이 성장의 밑바탕이 됐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어로 강의를 진행한다"며 국제통상인 양성을 위한 기초적인 언어능력과 심도 있는 원어강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 최고 대학에서 수학한 교수에서부터 실무적인 경험을 가진 교수에 이르기까지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박진성(상경 · 국통 09)군은 "단순히 무역과목에만 치우치지 않고 법과 경제 등 다양한 학문을 아우르며 폭넓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우리학과의 강점"이라며 "이후 진로를 결정하는 데도 다양성을 가질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민녕 교수는 "어떤 과목을 개설하면 좋을지 등 학과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을 하고 꾸준히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학과의 학생만족도가 높은 이유"라며 국제통상학과의 인기 비결을 말했다. 현재 국제통상학과의 졸업생들은 사회 곳곳에서 학과를 빛내며 선후배 간 유대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며 학과 발전에 보탬하고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산업경영공학과

공학적 지식에 경영학적 마인드 더해 다양한 취업문 열어

공학은 기구를 만드는 학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편하고 윤택하게 도와주는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있는 것을 탐구하기보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이성룡 산업경영공학과장 교수가 설명했다.

산업경영공학은 큰 의미에서는 공학의 범주에 속하지만 여느 공학과는 다르게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즉 문제해결의 방법론에 더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자동차회사에서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공학자의 관심은 자동차의 얼개와 성능 등에 있어요. 반면 산업경영공학자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고객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자동차를 적절한 가격에 그리고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까' 등에 있다고나 할까요?"

이성룡 교수는 공학적인 지식과 함께 경영학적 지식이 뒷받침되는 학문이 산업경영공학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학생들은 모든 산업분야로 진로의 방향을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다. 우리학교 공과대학의 취업률에 있어 산업경영공학과가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학생들이 여러 방면으로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성룡 교수는 "공학적인 지식의 기반 위에 시스템적이고 경영적인 마인드를 갖추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기업의 선호도가 높다"며 학과만의 강점을 설명했다. 특히 학과 차원에서 학생들의 문제 해결의 능력 및 팀워크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 졸업을 위한 5학점의 팀 프로젝트 과목 운영이 있다.

지도교수는 배정돼 있으나 프로젝트의 주제설정에서부터 문제해결까지 모든 수행 과정을 학생들이 현장에서 스스로 한다. 이 같이 실무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한 '훈련'을 강조하기에 사회로 진출한 많은 학생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수들이 주기적으로 학생 상담 및 지도에 역량을 쏟는 등 단합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또한 산업경영공학과의 강점 중 하나다.

이번 해 졸업한 최윤수(공과 · 산업경영 06)군은 전공을 살려 반도체의 기본이 되는 웨이퍼를 만드는 LG실트론의 생산 · 기획 분야에 입사했다.

최군은 취업에 있어 산업경영공학과만의 강점을 이야기했다. "우리학과에서는 모든 분야에 연계된 학문을 배우면서도 실무를 위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직무에 부합되는 생산관리에 대해 최적화된 학과 수업을 받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취업 범위가 광범위해 자칫 한 곳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나 우리학교의 강점인 외국어 실력까지 뒷받침된다면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국내 유일무이

이란어과

"이란어과는 국내 대학은 물론 아시아 대학 중에서도 거의 유일한 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병옥 이란어학과장 교수가 자랑스러운 미소를 띠며 기자를 맞이했다. 이란어과는 중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덕분에 1976년 창립된 학과다.

당시 오일쇼크와 같은 중대한 사건들로 우리나라에서 중동지역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생겼고 중동진출을 위한 전문인 양성을 위해 정부에서 설립을 인가한 것이다. 학과가 설립되며 이란의 팔레비 재단에서 전체학생에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한다.

이란어과 1회 졸업생이기도 한 장병옥 교수는 "국내 대학은 물론 어느 세계 대학을 살펴봐도 중동학과는 있어도 우리학교처럼 세분화된 학교는 드물다"고 말했다.

설립 초기 이란어과는 관련 지식서나 어학 교과서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다. 교수들 및 학생들의 단결된 노력으로 설립 초기의 불모지에서 현재의 자리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장 교수는 "이란어과 후세대의 발전을 위해 이란 및 이란어에 관한 기초자료를 만들고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연구에 매진했다"며 감회를 밝혔다.

동시에 "현재 이란의 핵 문제로 한국은 물론 세계정세와 이란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며 "이란과의 무역이 끊기는 등 경제 관계가 긴장 상태에 놓이게 돼 안타깝다"며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해서도 걱정을 표했다. 그렇다고 교수들과 학생들이 부정적인 전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공대현(동양어 · 이란어 12) 이란어과 학생회장은 이란이 자원부국임을 강조하며 "이란은 우리나라와 비공식적인 교역량이 2위에 해당하는 등 큰 블루마켓으로 평가받을 뿐 아니라 깊은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라며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동문회와 협조해 취업포럼을 개최하고 동문과 재학생 간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란어과의 부흥을 이끌고자하는 의지를 보였다.

장 교수는 "우리학과는 가히 이란학의 메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란과 한국의 통상 및 외교를 도맡는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란어과 출신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고 학생들을 가르쳐 글로벌 시대에 한국과 이란을 잇는 인재를 키우겠다"는 다짐을 했다.

이은결 · 신민지 기자 86hufspress@hufs.ac.kr

외대학보
2013년 3월 6일 수요일 957호

방심할 수 없는 나의 머리, 20대 탈모

20대라고 머리숱에 자신 있는가. 아직 젊다고 탈모는 자신과 먼 이야기일까?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비어버린 정수리, 한참 위로 올라가버린 이마. 남의 일이 아니다. 20대에도 탈모가 불어 닥칠 수 있다. 미리미리 사방댐을 공사해 놓아야 다음 여름에 수해피해를 줄이는 법이다.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20대 탈모에 대해 알아보고 치료법과 예방법을 알아보자.

얼마 전 기자의 지인은 모발이식 수술을 받았다. 그는 우리학교 재학생 나영민(가명, 26)군이다. 그가 다니는 압구정의 병원을 따라갔다. "요즘 20대 탈모 환자 많아요" 최호철 전문의는 20대에도 탈모가 빈번할까하는 기자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한다. "20~30대에서 정말 탈모가 많아진 건지 요즘 외모에 관심들이 많아서 내원하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0년 전에 비해 찾아오는 환자수가 2배는 늘었어요" 최호철 전문의에 따르면 20대 탈모의 주된 원인은 남성형 탈모과 스트레스성 탈모이다. 남성형 탈모는 유전에 의한 탈모로 영구적으로 진행된다. 반면 스트레스성 탈모의 경우 일시적이며, 피부염 등에 의해 발생한다.

나영민 군은 남성형 탈모이다. 그가 자신이 탈모라는 것을 인지한 때는 지난 2010년이다. "2010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탈모에 대해 더욱 신경이 집중됐죠. 주변의 놀림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제 스스로도 콤플렉스라 생각해 대인관계에서 더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나 군은 그 동안 뿌려 바르는 유형의 약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결국 나 군은 지난 1월 모발이식 수술을 받았다. "손수 힘들게 수술비를 마련해 그 간 소망해 왔던 수술을 받으니 지금은 한 시름 놓은 것 같아요" 수술 후 나 군은 모발 관리에 더욱 관심을 쏟고 있다고 했다. "생각날 때마다 검은콩을 우유와 함께 갈아서 먹기도 하고, 콩을 볶아서 간식처럼 먹고 있습니다"라며 들고 온 콩을 보여주며 미소를 지었다.

◆탈모에 대한 오해들

-아버지가 탈모라면 나는 안심해도 되는 걸까?
탈모도 한 대 걸러서 나온다고 흔히들 생각한다. 하지만 절대 아니다. 탈모 유전자는 우성이다. 열성 유전자라면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만 아쉽게도 탈모는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조심해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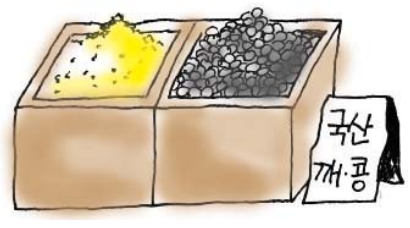
-탈모약을 먹으면 성기능이 저하된다는데…
초반 탈모치료의 경우 실제로 호르몬제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에 탈모치료에 사용되는 약은 '프로페시아'이다. 이는 남성호르몬의 차단이 아니라 남성호르몬을 수용하는 수용체를 차단하는 약이다. 수용체는 머리카락의 생성과 소멸의 사이클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즉 탈모의 정확한 원인은 남성호르몬 수용체 과다이다. 결국 프로페시아를 먹으면 성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은 잘못된 낭설이다.

하지만 탈모를 겪는 모든 20대들이 나영민 군처럼 모발이식 수술을 할 필요는 없다. 최호철 전문의는 "유전형 탈모의 경우 궁극적인 해결방법으로 수술 밖에 없겠지만 나 군처럼 20대 중반부터 할 필요는 없다"며 "유전형 탈모는 원래 20대부터 시작되지만 수술은 진행 경과에 따라 30대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전문의는 자신도 사실 유전형 탈모를 가지고 있다며 속사정을 털어 놓았다. "제가 사실 쌍둥이인데, 제 동생은 지금 대머리예요"라며 일상생활 속 꾸준한 관리에 대해 강조했다. "저는 지속적으로 탈모 샴푸도 쓰고, 약도 꾸준히 먹고 있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 동생은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쓰지 않죠"

20대는 유전형 탈모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성 탈모도 겪는다. 현재 군복무중인 김기정(국제지역 · 아프리카 09)군도 2011년 총학생회장 시절 탈모를 겪었다. 그 당시 김 군은 총학생회장으로서 삭발과 단식을 감행한 적이 있다. "자리가 주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일정, 단식으로 인해 영양결핍까지 겹치면서 단식 일주일 후부터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임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병원에 다녔죠" 그는 꾸준한 병원치료와 처방된 약을 통해 현재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렇듯 이제 20대에도 두피건강에 소홀할 수 없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 할 수 있는 탈모 예방법과 두피 건강을 챙기는 생활 습관들을 최호철 전문의에게 들어봤다. "색깔이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콩과 깨가 모발에 좋은 건 확실해요" 흔히 블랙푸드라 하며 모발과 연관짓곤 하지만 최 전문의는 색깔에 크게 구애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술과 담배는 탈모에 치명적이죠. 술은 스트레스성 탈모의 원인이 되는 염증을 유발하고, 담배는 혈관을 좁혀 두피에 영양공급을 막아 탈모를 돕게 되는 꼴입니다" 더불어 두피에 최대한 자극을 덜 주는 편이 좋다. 잦은 염색과 파마는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자극이 덜한 탈모방지 샴푸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신민지 기자 86hufspress@hufs.ac.kr



▲"색과 큰 연관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콩과 깨는 확실히 모발에 좋습니다" 최호철 전문의. 단백질은 모발에 좋지만 동물성 단백질은 피지 분배를 원활히 해 오히려 두피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두피에 큰 자극을 주는 빈번한 염색과 파마는 탈모를 돕는 지름길이다. 20대라면 염색과 파마를 전혀 안할 수는 없다지만 두피를 고려해 횟수를 줄여보는 건 어떨까.

▲몸에 해로운 것은 한군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술과 담배는 내장기관에만 나쁜 것이 아니라 두피에도 좋지 않다. 술은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담배는 혈관을 수축해 원활한 영양공급을 방해한다.

▲건강한 두피관리의 첫 번째는 청결이다. 쌓인 피지를 깨끗이 닦아내고 세제가 남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 더불어 머리를 감은 후 두피를 온전히 말리는 것은 두피의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일러스트 김경보

영화에 주석을 달다 기자 고정 칼럼

양재상 기자

'영화에 주석을 달다'는 영화의 한 장면을 통해 영화의 다른 면을 알아보고 싶은 칼럼입니다.

가슴 속의 납덩이

아무것도 없는 밀폐된 빈 방. 그 안엔 두 남자가 있다. 한 남자는 강간당한 뒤 살해당한 딸의 아버지고 다른 한 남자는 그 딸을 죽인 용의자다.

철썩. 피해자의 아버지가 용의자의 뺨을 후려친다. 철썩. 용의자는 지적장애인. 자신이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고 싶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그저 맞기만 한다. 철썩. 하지만 피해자 아버지의 눈에 비친 용의자는 그저 자신의 딸을 죽인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또다시 철썩.

▲7번방의 선물

용의자가 된 남자는 이성을 잃은 경찰청장과 재빨리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는 경찰들 앞에서 항변할 기회도 없이 수감된다. 관객은 경찰에 대한 분노와 '진짜 범인은 누구인가' 하는 의문을 느낀다. 하지만 분노와 의심을 잠시 접어두고 용의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피해자인 경찰청장을 살펴보자.

딸을 잃은 경찰청장은 용의자와 마주한 순간 인간의 잔인함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죗값, 달게 받아. 그러지 않으면 너의 딸도 그렇게 해 줄 거야."라고 말하면서. 평소에는 차분하다 갑자기 잔인해지는 그. 속된 말로 정신을 놨다. 하지만 사랑하는 딸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정신을 차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경찰청장의 잔인함을 비난하기 전에 그가 처한 상황을 직시해보자.

슬픔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우는 사람이든 억눌린 슬픔을 분노로 표출하는 사람이든 감당할 수 없는 감정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다. 재조사를 권유하는 자신의 부하에게 "자네는 자식을 잃어봤나?"라고 경찰청장이 반문하는 것처럼 피해자는 타인의 공감을 절실히 원한다. 하지만 공감해줄 사람은 없기에 그는 결국 홀로 고통을 안고 가고, 늘 외롭다. 경찰청장이든 용의자든 누구에게나 고통은 겪는 사람의 나약함을 일깨워준다. 이렇게 본다면 고통이 닥쳤을 때 자신을 나약한 사람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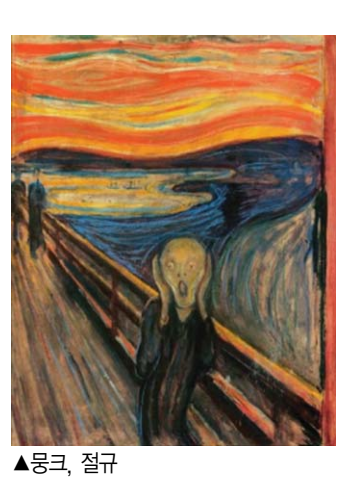
맨눈으로 보는 그림 기자 고정 칼럼

임채윤 기자

'맨눈으로 보는 그림'은 그림과 화가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작품 그 자체만을 감상하는 코너입니다.

헉

그림을 펼친다. 그림 가운데의 사람은 그림의 제목처럼 절규 중이다. 그림의 스피커를 켜는 순간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데시벨의 소리가 끄아아악 하고 터져 나올 것 같다. 이 사람의 절규는 눈, 코, 입을 뻥 뚫어 놓았다. 절규의 극단 속에서 머리카락도 날아갔다. 몸뚱아리는 오랫동안 한 자리를 꽉 쥐고 있던 가락엿처럼 휘어졌다. 하늘은 울렁울렁, 강은 흐느적거린다. 괴로움 그 자체다.



▲뭉크, 절규

그런데 이 유령 꼴의 사람이 떡하니 박혀있는 정면에서 왼쪽으로 시선을 조금 틀면 한 남녀가 보인다. 그림이 지니는 괴로움 때문에 잘 보지 않으면 사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흐릿하게 그려져 있지만 한 명은 바지를, 한 명을 치마를 입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은 가운데 사람과 같은 다리 위에 있지만 모습은 전혀 다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소리를 질러대고 있는데도 별로 신경 쓰지 않은 채 평온히 걷고 있다. 그림이 아무 의도도 없이 이 남녀를 배치해 놓았을 리 없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것일까.

그림은 가운데 사람의 내면을 표현한 것이지 그의 겉모습과 행동을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 차분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림은 이 사람 내면에 숨겨져 있는 지독한 불안을 그린 것이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 근원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 아무리 상황이 잘 흘러가고 있어도 미래의 불확실함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든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춘 듯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안에는 세상에 대한 어쩔 수 없는 공포가 숨겨져 있다. 이 그림은 그것을 휙 끄집어낸 것이다. 너, 지금 차분히 걸어가고 있지만 사실 마음속은 이렇지? 라면서.

그림을 보고 처음에는 '헉' 했지만 이내 픽 웃어버린다.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가 그런 존재인걸. 높은 경지에 오른 도인이 아니고서야 마음속에 끈질기게 존재하는 불안감을 뿌리뽑아버릴 방법은 없다. 다행인 것은 저 유유히 걸어 가는듯한 남녀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든 다들 불확실을 짊어지고 삶을 살아간다. 불안은 벨을 수 없다. 그러니 스스로의 불안감에 안절부절 하기보다는 차라리 가끔의 절규가 낫지 않을까. 끄아아악.

〈제1회 외대학보 학술대전 당선작〉

본지 9~11면의 당선작으로 게제된 논문은 원본이 아니라 축약본입니다.

17~18세기 초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VOC)의 동아시아 진출

– 대(對)동아시아 교역구조와 식민지 경영을 중심으로

김 상일 (인문 · 사학 07)

15세기부터 시작된 유럽의 해양 팽창은 그 주체였던 유럽 뿐만 아니라, 대상이 되었던 많은 지역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유럽인들은 해양 팽창으로 인해 기존의 지리적인 관념들을 재정립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점차 영향력을 넓혀갔다. 이러한 시기적 상황에서 해상으로의 무역로를 개척하려는 시도들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있었다. 해상에서 포르투갈, 스페인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자, 양국은 토르데시야스(Tordesillas) 조약을 통하여 활동범위를 조정하였다. 이 조약을 통해 스페인은 아메리카 방면에서, 포르투갈은 아시아 방면에서의 무역 우위를 행사할 수 있었다. 포르투갈의 아시아 무역체제는 인도무역관(Casa da india)체제로 불렸는데, 이것은 아시아 무역에서 포르투갈 이외의 국가를 배제하는 '무역 독점' 체제였다. 하지만 이러한 포르투갈의 독점 체제는 후발 주자였던 영국과 네덜란드가 해양 팽창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면서 막을내리게 된다.

아시아 방면의 무역, 특히 '향신료 무역'에 있어서 기존 포르투갈의 독점적 지위를 끌어내린 것은 네덜란드였다. 이러한 네덜란드의 활동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Vereenigde Oost-Indische Compagnie, 이하 VOC)를 토대로 이루어 졌다. VOC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네덜란드 무역 독점 회사였으며, 국가를 대신하는 기능까지 수행하는 독특한 형태의 회사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네덜란드가 VOC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해양 팽창에 참가하기 이전에는, 기존의 포르투갈의 체제 하에서 대(對) 아시아 교역에 참가했었다. 하지만 아시아 교역품의 유럽 판매망이 재편되면서, 네덜란드가 배제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덜란드 상인들은 포르투갈을 거치지 않는, 직접적인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또한 당시 네덜란드가 스페인과의 독립전쟁을 치르고 있던 상황에서, 해상 진출을 통해 대외적 위상을 공고하게 함으로써 신생국가였던 네덜란드가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독립하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도 포함되어 있었다.

초기에는 여러 회사들(선구회사, voor-compagnien)이 각 주와 시의 지원을 받으며 아시아 무역에 참가했지만 회사들 간의 가격경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통합된 아시아 무역을 주관할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요한반 올덴바네벨트를 중심으로 각 주와 시의 동의를 얻어, 1602년 3월 20일에 통합된 동인도 회사에게 아시아 지역에서의 무역 독점을 인정하는 특허장을 허가함으로써 비로소 '통합 동인도 회사'(De Vereenigde Nederlandse Geoctroyeerde Oostindishe Compagnie)가 출범하게 되었다. VOC가 출범한 이후, 네덜란드는 아시아 무역을 주도하고자 공격적인 방식을 채택 하였다. 특허장이 가결 되고 곧바로 동인도 제도로 향할 선단을 꾸렸으며, 이 선단들에게는 동인도 제도에 산재해 있는 왕국과 공국들을 포섭하여 무역망을 형성하고, 가능하면 중국 해안까지 진출하여 기지를 세우라는 회사의 명령이 떨어졌다.

이러한 적극적인 VOC의 방식에 따라 포르투갈 요새가 설치되어 있었던 암본(Ambon) 섬을 1605년에 탈취하였고, 1611년에는 자바(Java) 섬의 자야꺼르타(Jayakerta, 자카르타)에 VOC 상관을 설치하면서 동인도 제도에서의 '네덜란드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갔다. VOC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어 가면서, 동인도 제도에서의 명령 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느낀 네덜란드는 1609년에 임시로 피터 보트(Piter Both)를 초대 VOC 총독으로 임명했고, 1610년에는 공식적인 총독(Geuverneurs-Generaal) 직제를 두었다. 1619년에는 4대 총독으로 부임한 얀 피텔스존 쿤(Jan Pieterszoon Coen)이 자야꺼르타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반탐왕국을 몰아내고, 바타비아(Batavia)를 건설하여 VOC 총독부를 설치함으로써 동인도 제도 지역에서의 네덜란드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VOC는 이곳의 향신료들을 점유하여 아시아 방면의 무역에 이용하였는데, 기본적으로 '간접적인 통치방식'과 '향신료 통제 정책'을 사용하였다. '간접 통치'는 토착 세력 통치자들의 권위나 체계를 이용하여 VOC가 필요한 향신료나, 기타 교역품, 그리고 상관 및 기타 공관 유지에 필요한 물품과 식량들을 확보하는 방법이었다. 주된 목적인 향신료는, '향신료 통제 정책'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동인도 제도에서의 향신료 공급이 유럽 수요량에 부합하도록 하는 방법이었다. VOC는 유럽 향신료 수요량에 맞추어, 공급량을 조절하고자 몰루카 제도, 반다 제도 등지에서 정향(Clove)과 육두구(Nutmeg, Mace)나무를 계획적으로 잘라내 버렸다. 이러한 향신료 통제에 부합하지 않는 토착 세력들은, 식량 공급을 끊거나 함대를 파견하여 무력으로 굴복시켜 강제적으로 네덜란드의 향신료 통제 정책에 포함시켰다.

동북아시아 방면의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기점이 되었던 대만에서도 VOC는 이와 유사한 통치방법을 적용하였다.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던 대만을 교역품 생산의 기지로 만들고자, 한족의 이민을 장려했으며 이들을 개간사업에 이용하였다. 개간이 일정 수준으로 진행 된 이후에는, 쌀과 설탕과 같은 상업 작물들을 생산하여 무역 이익을 내는데 이용하였다. 즉 생산되는 교역품을 조정하여 네덜란드의 아시아 교역 체계에서 이용한 것이다. 대만에서도 거주민(이주한인과 토착민)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결수제'(여러 한인 소작인들을 1결로 묶고, 여러 결을 또 다른 대결로 묶어서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방식)와 '장로회의'(토착민들의 장로들을 모아 VOC의 명령을 전달하고, 정세를 보고받는 회의) 같은 체계를 도입하여 간접적으로 이들을 통제함과 동시에 반란 세력과 같은 위협요소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식민통치를 받았던 대만과 상관(商館)이 설치되었던 나가사키는 VOC의 중요한 무역 거점지로써 기능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VOC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기 이전까지, 이 지역에서 여러 요소들이 맞물려 무역 활동의 토대가 조성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네덜란드가 진출하기 이전에는 동북아시아의 무역에서 주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었다. 특히 1571년 필리핀을 점령한 스페인이 신대륙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은을 아시아 방면으로 유입시켰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품의 유통으로 말미암아 은의 화폐기능은 더욱 더 높아졌다. 이렇게 은의 반입이 높아지자, 명조(明朝)는 일조편법을 시행하였으며 이는 은의 유통을 가속화 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16세기 중반부터 일본에서 은과 구리 광산의 개발이 진척되었고, 여기서 생산된 은과 구리 또한 은 중심의 화폐 시장을 구성하는데 일조했다.

이러한 은 기반의 화폐시장 출현 뿐 아니라, 당시 명과 일본이 시행한 해금정책도 앞서 활동한 포르투갈과 같은 유럽세력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무역구조에 진입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쳤다. 특히 1592년에 발발한 임진왜란은, 해금을 기본으로 하는 명과 일본의 대외활동을 더욱 더 움츠리게 하였다. 명은 일본을 경계하였고, 일본의 에도막부도 자국인의 해상활동을 제한하였던 것이다.

VOC는 이러한 배경에서 '중개자'적 역할을 통해 동북아시아 교역구조에 접근하였다. 시마바라의 난으로 인해 포르투갈이 가톨릭 포교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이를 이용하여 포르투갈 상관을 일본에서 축출하고 그 자리를 이었다. 중국 방면, 특히 남중국 일대에서는 해금정책에도 불구하고 '주사무역'이 성행하고 있었다. 직접적인 중국으로의 교역창구를 통할 수 없었던 네덜란드는 대만을 거점으로 하여, 남중국해 일대에서 활동하던 '해상세력'들을 이용하였다. 이들 해상세력은 단순한 해적이 아니었고, 명조나 지방정부에서도 통제가 힘들었던 세력들이었다. 대표적으로 정지룡과 같은 세력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을 통하여 VOC는 중국의 상품들을 얻을 수 있었다. 네덜란드는 당시의 정치적인 변동 상황과 은 중심의 무역구조, 그리고 남중국해에 퍼져있던 해상세력 등의 환경을 이용하여 동북아시아 교역체계에 진입할 수 있었다.

정리해보면, VOC는 바타비아(자카르타의 옛 지명)를 위시한 향신료 생산 거점, 그리고 대만과 나가사키라는 식민지와 상관을 통하여 유럽 본국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동북아시아를 잇는 거대한 상업 루트를 형성하였다. 인도네시아 제도와 대만을 식민지배하여 거점으로 삼고, 무역 기착지로 이용 했을 뿐 아니라 교역품의 새로운 생산지로 변화시키는 과정도 같이 진행했다. 네덜란드의 이러한 식민지배는 유효하게 작용하였다. 유럽과 동아시아를 매개하는 역할 이외에도, 동아시아 지역 안에서의 매개자로서도 기능했다. 이를 통해 네덜란드는 단순히 유통 기능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생산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이는 네덜란드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공고히 할 수 있었던 요소였다.

VOC의 동아시아 방면 진출과 무역 체제 형성은 네덜란드 본국에 엄청난 부를 가져다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황금기'를 누리게 된다. 그러나 18세기 초반을 넘어가면서 네덜란드는 '교역 우위'라는 위치에 안주한 나머지 체제 개편에 소홀하였고, 결국 교역의 주도권을 영국(영국 동인도 회사, EIC)에게 내어주게 된다. 그렇지만 약 1세기 동안, 네덜란드(VOC)는 동아시아 내부, 특히 동남아와 동북아의 무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 VOC는 동아시아 지역의 교역활동을 담당했던 많은 상인집단들과 해상세력들을 잇는 중요한 세력이었던 것이다.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VOC는 자신들의 무역망을 통하여 유럽과 동아시아의 교역의 한 축을 담당하였으며, 범지역적 교역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외대학보
2013년 3월 6일 수요일 957호

〈제1회 외대학보 학술대전 당선작〉

한국어 파생명사의 형태소 표상 양식과 어휘 처리 모형

정원필 (영어 · 영어 07)

인간의 언어 이해와 산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이 되는 어휘 처리 과정과 심성 어휘집(mental lexicon)의 어휘 표상 양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파생명사를 대상으로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고, 실험결과를 토대로 한국어 어휘의 처리 모형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심성 어휘집의 표상 양식을 연구하기 위한 기존의 다양한 선행 연구들에서 실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입증된 몇 가지 효과들이 있다. 이를 반영해 자극 목록의 전체 어절과 어근 빈도를 통제해 빈도 효과를 배제하였다. 또한, 전략효과와 삽화효과를 차단하고자 차폐 점화(masked priming) 방법을 통한 어휘 판단 과제(lexical decision task)를 시행하였다.

구체적인 실험 자극의 선정 및 설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실험조건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실험조건 1은 한자어 접두사, 실험조건 2는 고유어 접두사, 실험조건 3은 한자어 접미사, 실험조건 4는 고유어 접미사로 나누었다. 또한, 각 실험조건별로 a, b, c의 하위 조건들을 추가하였다. 실험조건 1-a의 경우 한자어 접두사로 파생된 파생 명사를 강범모, 김흥규(2009)의 빈도표에서 빈도가 5이하인 단어를 찾아, 어근의 빈도가 50이하인 단어를 각 해당 접두사마다 2개씩 선정해 각각 점화 단어와 표적 단어의 단어 쌍으로 만들었다(예: 불만족-불포화). 실험조건 1-b의 경우 1-a에서 사용한 점화 단어를 그대로 점화 단어로 사용하고, 표적 단어로는 1-a에서 선정한 접두사에 전체 어절은 비단어이지만 빈도가 50이하인 어근을 결합해 접두사가 어휘 처리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예: 불만족-불재능). 실험조건 1-c의 경우 1-b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a에서 사용한 점화 단어를 그대로 점화 단어로 사용하고, 표적 단어로는 1-a에서 선정한 접두사에 전체 어절과 어근이 모두 비단어인 조건을 만들었다(예: 불만족-불머이).

실험조건 2-a, 2-b, 2-c의 경우 고유어 접두사를 선정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단어쌍을 만들었으며(예: 날벼락-날건달, 날벼락-날얼룩 , 날벼락-날간초), 실험조건 3-a, 3-b, 3-c는 한자어 접미사를(예: 만족감-좌절감, 만족감-유흥감, 만족감-벼토감), 실험조건 4-a, 4-b, 4-c는 고유어 접미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단어쌍을 구성하였다(예: 밀수꾼-재주꾼, 밀수꾼-추궁꾼, 밀수꾼-갑아꾼).

위의 실험조건의 유의미를 판단하기 위해 2가지 통제조건을 만들었다. 통제조건 1은 앞서 선정한 실험조건의 전체 어절 평균 빈도와 같은 빈도로 통제한 단어로 구성하였고(예: 탄식-엉망), 통제조건 2는 표적 단어를 비단어로 구성하였다(예: 애원-뭄견).

위와 같이 구성된 실험 자극 세트를 가지고 차폐 점화 방법을 통한 어휘 판단 과제를 시행하기 위해 점화 단어가 제시되기 전에 모니터 화면 중앙에 '#####' 표시가 약 500ms 동안 나타나고, 곧이어 점화 단어가 실험 1은 60ms, 실험 2는 120ms의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제시되도록 구성하였다. 이후 표적 단어가 제시되어, 실험 참가자가 1000ms동안 반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다음 자극으로 넘어가도록 하였고, 이를 결측 자료(missing data)로 처리하였다.

실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19세~26세의 연령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실험 1에서는 25명이, 실험 2에서는 실험 1에 참가하지 않은 17명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한자어 접사와 고유어 접사에 따른 어휘 처리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접사의 종류(한자어, 고유어)에 따라 어휘 처리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이재욱, 김정숙 (2001)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둘째, 접두사와 접미사에 따른 어휘 처리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통제조건과의 차이로 보아, 접두사 파생명사는 접사와 어근이 각각의 단위로 심성 어휘집에 저장되어 있는 반면, 접미사 파생명사는 어절 전체가 심성 어휘집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재욱, 김정숙 (2001)의 연구 결과와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접두사에 비해 접미사에서 어근과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접미사 파생명사는 어근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한꺼번에 저장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셋째, 실험 1과 실험 2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한국어 어휘 처리 모형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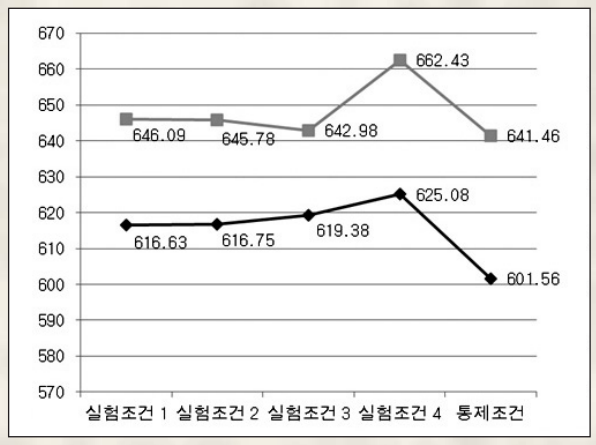


그림1. 한국어 어휘 처리 과정 모형

그림 1의 한국어 어휘 처리 과정 모형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단어를 인식하면, 일단 심성 어휘집에서의 색인(index) 검색에 들어간다. 여기서는 단순히 같은 문자열이 있는지 심성 어휘집에서 탐색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색인에 있는 단어는 바로 의미 검색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색인에 없는 단어는 분해 단계로 넘어간다. 분해 과정에는 여러 형태론적으로 분해 가능한 여러 요인들이 규칙으로 저장되어 있으며, 이 규칙에 따라 분해 가능한 단어(실험조건 a, b)는 완전 분해되고, 분해가 가능하지 않은 단어는 그대로 처리 완료 단계로 넘어가 비단어로 판별된다(실험조건 c, 통제조건 2). 이렇게 분해 과정을 거친 단어는 심성 어휘집에서 다시 한 번 색인 검색을 하게 된다. 이번 색인 과정의 경우 의미 검색을 수반하게 되는데, 앞서의 색인 과정에서 색인에 해당 어휘가 있어 분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의미 검색 과정에 온 단어는 의미 검색 과정 거친 후 완료 단계로 넘어가 단어로 판별된다(실험조건 3, 4의 a 조건). 반면, 분해가 되어 심성 어휘집 색인 및 의미 검색 과정에 접근한 단어는 각 구성단위로 색인 검색을 한 후 의미 검색을 하게 된다. 그 후 결합 단계로 넘어간다. 결합 단계에서는 분해되었던 구성 형태소들이 다시 결합하게 된다. 이 후 의미 도출 단계에서 재결합된 단어의 의미를 도출하게 되는데, 이 의미 도출 단계에는 재결합된 단어가 의미적으로 결합 가능한지를 판별하고, 가능한 경우 적절한 의미를 도출해 완료 단계에 이르러 단어임을 판별하게 되고(실험조건 1, 2의 a 조건), 불가능한 경우 적절한 의미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완료 단계에 이르러 비단어임을 판별해내게 된다(실험조건 b 조건).

이와 같은 모형을 따른다면, 심성 어휘집에 어절 단위로 저장되어 있지 않은 접두사 파생명사의 경우, 심성 어휘집 색인 검색에는 없는 것으로 드러나 분해 단계에서 분해된다. 그 후 구성 형태소 단위로 색인 검색 후 의미 검색을 하게 된다. 그 다음 재결합을 한 뒤 의미 도출 과정을 거쳐 어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접두사의 a, b 조건은 의미 도출 과정까지 간 뒤 어휘 판단을 하기 때문에 a, b 조건의 어휘 반응 시간이 c 조건의 반응 시간보다 유의미하게 느렸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접미사의 경우 실험결과 전체 어절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성 어휘집의 색인에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분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의미 검색 후 어휘 처리를 완료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접미사 a 조건과 c 조건은 총 같은 수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a 조건 : 색인 ? 의미 검색 - 완료, c 조건 : 색인 ? 분해 ? 완료) 반응 시간의 차이가 무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접미사 b 조건의 접미사 파생명사는 첫 색인에 검색되지 않지만, 분해는 가능하고, 또 각각의 구성단위로 색인 및 의미 검색을 거쳐 결합된 뒤 의미 도출 과정에서 비단어임을 판별해 내기 때문에 접미사 a, c 조건에 비해 접미사 b 조건의 반응 시간이 유의미하게 느려졌다고 볼 수 있다.

넷째, SOA를 제외한 다른 조건이 동일한 실험 환경 하에 생긴 실험결과의 차이는 어휘 처리 과정에 있어서 들어온 단어의 수에 따른 어휘 처리 과정 속도의 차이를 암시해 주었다. 이는 실험 1의 SOA에서는 점화 단어를 인식하지 못하다가 실험 2의 길어진 SOA에서는 점화 단어를 인식해 점화 단어와 표적 단어를 모두 처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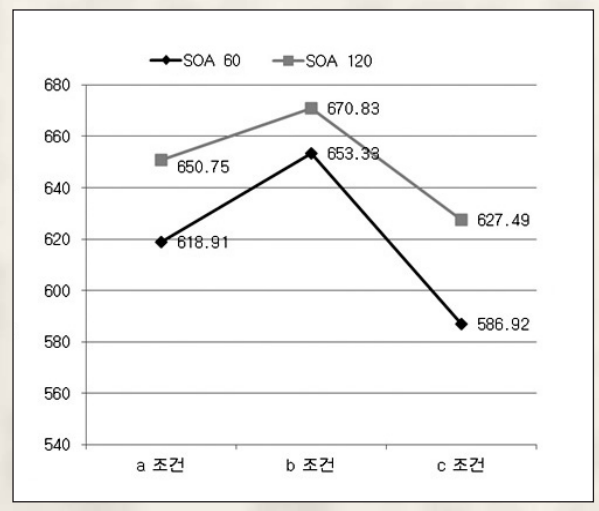


그림 2. SOA에 따른 실험조건 별 평균 반응 시간

그림 2의 SOA에 따른 실험 결과의 차이에서 보이듯이 우리의 어휘 처리 과정에 있어서, 표적단어 한 단어를 처리하는 것에 비해, 점화단어와 표적단어의 두 단어를 처리하는 것이 그 처리 속도가 느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서, 점화단어와 표적단어의 두 단어 처리가 어휘 처리하고 있던 점화단어에 대한 어휘 처리 과정을 중단하고, 표적단어에 대한 어휘 처리를 진행하였는지, 점화단어를 계속 어휘 처리하면서 표적단어를 추가로 처리하는지에 대해선 추후 더 정교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 실행된 실험 결과는 그 동안의 심성 어휘집의 표상과 처리 방식에 대한 연구가 영어권 언어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한국어로 확대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영어권 언어에서 여러 연구를 통해 만들어 놓은 어휘 처리 모형이 아닌 한국어 어휘에 대한 실험을 통해 한국어 어휘 처리 모형을 제시한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한국어 어휘 처리 모형은 한국어 파생명사로 한정한 실험의 결과로 유추한 모형으로 앞으로 다양한 품사의 어휘 처리에 대한 실험을 통해 이 어휘 처리 모형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1회 외대학보 학술대전 당선작〉

Core-Shell Detection in Images of Polymer Microbeads

장영걸 (공과 · 컴공 09)

전병환 (공과 · 컴공 09)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yonggi, 449-791, Republic of Korea
xpsxm85@gmail.com

1 Introduction

Microbeads of various size with complex core-shell structures are widely used in many applications such as drug delivery. During synthesis, it is important to characterize the beads' size such that uniform properties can be obtained from uniform size. The core-shell structures can be imaged with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or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but there are no available methods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size and distribution automatically. In this paper, we propose two automated core-shell detection methods using Hough transform (HT) and general Hough transform (GHT). We show the capabilities of these methods using OpenCV and compare the relative advantages and limitations.

2 Methods

2.1 Hough transform

We first used Hough transform to perform the characterization. Hough transform is a feature extraction technique used in image analysis, computer vision, and digital image processing [5].

Step 1) Image input: Any type of image can be used, B/W or color. If a color image with 3 channels (red, green, blue) are available, it is transformed into 1channel mode.

Step 2) Smoothing: Noise present in the images can be removed by repeated smoothing to improve the signal to noise (S/N) ration.

Step 3) Edge detection: Canny edge detection was performed using the matrix in 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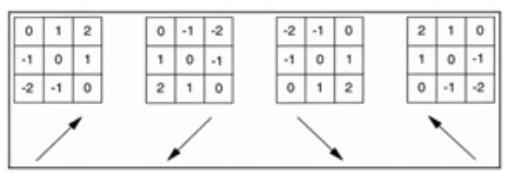


Figure 1. The matrix for approximation of change rate

Step 4) Thresholding: Figure 2 shows the SEM micrograph of polymer core-shell structures. Each image has a characteristic value such as bead radius. When performing Hough transform, the number of core-shells in image depends on radius, R. Thus this step can be used to automatically determine the thresholding value for each 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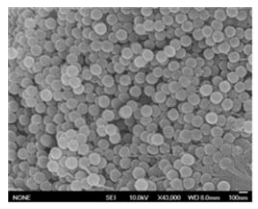


Figure 2. SEM image of core-shell struct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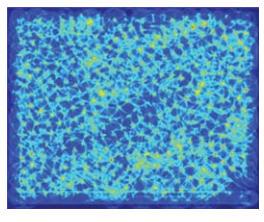


Figure 3. Image showing center of the circles as red dots determined after edge detection of the spheres. Higher intensity of red dots mean that they have higher frequency of overlapping circles determined from edge detection.

Step 5) Hough Transform: Each sphere has slightly different value of R. Center of each circle is determined after performing edge detection by thresholding. The total number of the circles is determined using this method. **Figure 4** shows the image after performing Hough Transform. Red dots with higher intensity indicate point of intersection for higher number of circles.

Step 6) Hough circle transform - For sphere detection, same procedure for line detection using Hough transform that was used to find the circles in 2D, but with an additional variable to account for the increase dimensionality in the search space. Three dimensional parameter space (x_0, y_0, r) is used where x_0 and y_0 are the center coordinates of the circle and r is the radius of the circle in the following equation

$$(x - x_0)^2 + (y - y_0)^2 = r^2$$

->

The parameter vector is $p = (x_0 \; y_0 \; 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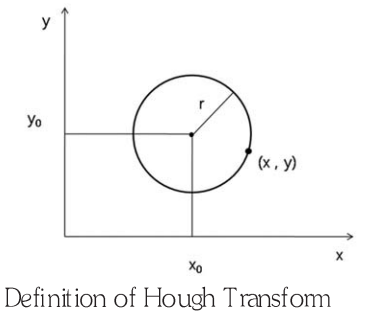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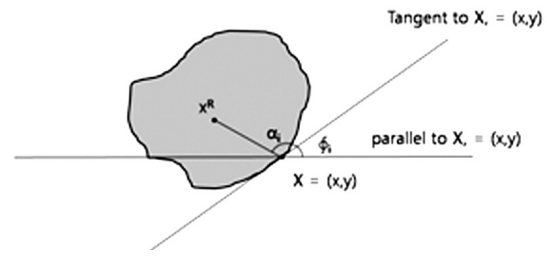
Figure 4. Definition of Hough Transform

```
For each edge point (x0, y0)
    For (x0 = x0_min ; x0< x0_max x0++)
        For(y0= y0_min ; y0<= y0_max ; y0++)
            R=sqrt((x-x0)^2 + (y- y0)^2);
            Accumulator[r][x0][ y0]++;  //Voting
            Find local maxima in accumulator [r][x0][y0]
                that higher than threshold
```

Step 7) Selecting the correct peak: The red peaks or points indicate high frequency of matches for circles. These points are the center of the core-shells and therefore the number of red points are equal to the number of core-shells. Using this approach, we can also reduce the total number and remove some spurious noise while keeping the bright spots. If the core-shell's size is increased, the edge's size will increase as well and there will be many points clustered around the real poin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obtain correct threshold values by removing the noise around the real center point. Next task is to determine the count of real center point by determining the number of overlapping edges. In some cases, only half of the edge might show up due to overlapping images. In addition, as the core-shell size increases, the number of pixels that are at the edge of the core-shells will increase as well.

2.2 General Hough Transform

As shown in **Figure 2**, because of the high density of core-shells in the image, there are many overlapping cores, showing only those that are in foreground. Those in the back appear as partial spheres as they are shadowed. In order to account for those that are partially blocked, we will need to implement a method to count them even if they do not show complete outline. In such cases, a template is needed to count incomplete crescent-shaped objects using general Hough transform.



5. Target shell modeling for non-symmetric shaped shells

Figure 5 shows an example of non-symmetric shaped object. After detecting the edge, following algorithm can be performed to generate an R-Table.
The pseudo code for making R-Table is as follows.

```
Pick a reference point : X^R=(xc,yc)
For each edge point, Xi = (xi, yi)
Calculate tangential angle φi
Calculate Vi=X^R-Xi and find norm ri
Direction angle αi of vi
Store ri, αi in R-Table with an index of
Ψi, quantized value of Φi
End fo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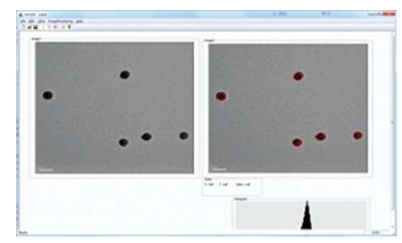
2.2.1 Recognition processing

In this part, pixels of edge, Φ_1 should be calculated. The algorithm of recognition processing pseudo c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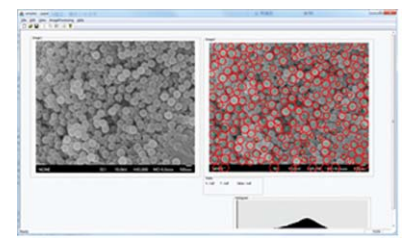
```
Clear accumulator array : Acc[ ][ ] =0
For each edge point : Ei =(xi, yi)
Calculate tangential angle Φi
For every item in R-Table indexed by Ψm
Quantized value of Φi
Find X^Rm,j =Ei+Vm, where Vim=rm ∠αm
X^Rm,j=Ei+Vm=(x^Rm,j, y^Rm,j)
Acc[y^Rm,j][x^Rm,j]<- Acc[y^Rm,j][x^Rm,j]+1
End For
End For
```

Find local maximum in Acc[ ] [ ], which is candidate reference X^R for a given model. Referencing R-Table with index, Ψ_m, vector is calculated, and the vector+pixel coordinates(x_i , y_i) of current edge, and candidate standard point , ⌐ is calculated. Finally local maximum will be found in accumulator array

3 Experiments



6. Test performed with simple shaped core-shell structures without overlapping core-shells.



7. Test performed with high density number of core-shells.

When the data show no-overlapping images of core-shell with low density of particles, it is relatively simple to determine the number of core-shells using straight forward methods. This is shown in **Figure 8**, where each particle can be accurately detected and the number of core-shells can be counted with high accura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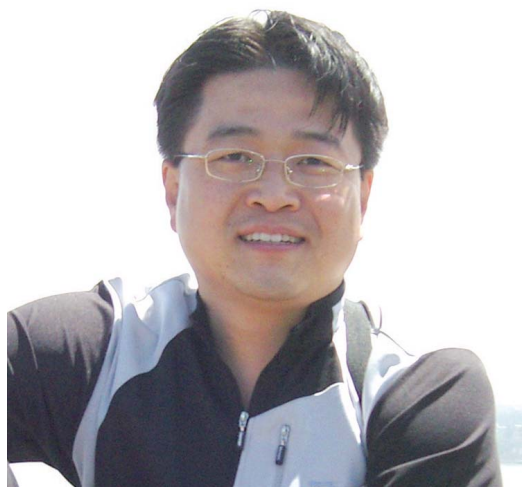
4 Conclusion

We have developed a robust method for accurately analyze the total number and size of core-shell structures synthesized by polymer chemists. Using appropriate edge detection protocol together with General Hough Transform, we have successfully analyzed the images. Improvements to accuracy may result from better edge detection methods using the frequency domain as GHT based on pixel domain was used in this work. Because General Hough Transform references R-table, we should generate templates automatically by using another algorithm and reference R-tables of template for each cases.

외대학보
2013년 3월 6일 수요일 957호

〈외대학보 제1회 학술대전 심사 총평〉

다시 시작하는 외대 학술대전



전종섭 언어인지과학과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2005년 5월, 외대학보는 '제42회 외대문학상' 및 '제22회 외대학술상' 공모전을 개최했다. 예년보다 응모자 수가 급감한 탓에 당선자 발표를 예정보다 미루어야 했지만, 그래도 결과 발표까지 진행할 수 있었다. 다음 해 11월, 외대학보는 전년도 '외대문학상'과 '외대학술상' 공모 광고를 그대로 게재하면서 '제42회 외대문학상'과 '제22회 외대학술상'의 제목을 '제43회'와 '제23회'로 수정하지 않고 게재하는 실수를 범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누구도 이 실수를 지적하지 않은 탓에, 12월 광고에서도 '제42회 외대문학상'과 '제22회 외대학술상'이라는 제목이 그대로 나갔고, 응모자가 없었던 탓에 해를 넘겨 2007년 3월에 다시 제목을 수정하지 않은 '제42회 외대문학상'과 '제22회 외대학술상' 작품 모집 공고가 나갔다. 2005년 '제42회 외대문학상'과 '제22회 외대학술상'에서 더 나아가기를 거부했던 학보사 측의 실수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외대문학상과 외대학술상의 맥은 거기서 끊겼다.

그리고 5년이 지나 2012년 가을 어렵게 '제1회 외대 학술대전'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제1회 외대학술대전'은 2005년 이후 중단된 외대문학상과 외대학술상을 통합했을 뿐 아니라 행사 목적 자체를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며, 그런 의미에서 '제1회 외대 학술대전'이라 명명하기에 충분하다.

이번 학술대전에서는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전 분야 논문과 소설,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광범위한 영역의 작품을 공모하였다. 이는 우리 학교 재학생 모두의 관심 분야가 외대 학술대전 응모 분야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응모된 작품들에 대해 교내외 전문가 두 분씩 익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하였다. 인문, 사회, 자연, 공학 등 학술 논문 심사위원께는 '학부생 논문으로 나름대로 잘 썼는가?'가 아니라 '해당 분야 박사급 교수 인력이 쓴 전문 학술 논문으로 보아도 손색없을 만큼 훌륭한 연구 논문인가?'라는 기준으로 평가해 달라고 요청 드렸다. 마찬가지로, 문학 작품 심사위원께도 '학부생 작품으로 나름대로 잘 썼는가?가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 인력이 쓴 전문 작품으로 즉시 출판 가능한 수준인지 심사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다.

많은 분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다양한 분야를 심사하면서 어떻게 객관적인 심사 결과를 보장할 수 있나는 점이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분야에 상관없이 학술 논문 혹은 문학 작품이 갖춰야할 기본 조건을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학문 분야는 다양하지만, 모든 학술 논문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춰야만 한다.

⑴ 학술 논문이 교과서의 한 챕터 또는 대중 잡지의 기획 기사처럼 '여러 소주제를 포함하는 큰 주제'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
⑵ 학술 논문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
⑶ 학술 논문에 포함된 문장, 표현, 도표, 그림 중, 논문 주제와 관련 없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⑷ 학술 논문에 포함된 모든 문장, 표현, 도표, 그림이 논문 주제와 논리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⑸ 학술 논문에는 '이전 연구'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거나, 이전 연구가 존재하지 않을 만큼 새로운 연구 주제라야 한다.
⑹ 학술 논문에 포함된 '이전 문헌 리뷰'는 논문 주제에 대한 배경 설명이거나 논문 주제와 관련된 일반적 논의이기 보다는 구체적 연구 주제에 대한 다른 학자들의 구체적 가설인 것이 좋다.
⑺ 학술 논문에는 '다른 학자들의 과거 주장과 확실하게 다른 저자만의 주장/가설'이 들어있어야 한다.
⑻ 학술 논문에 포함된 '저자만의 주장/가설'은 저자가 언급한 이전 연구의 문제점을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
⑼ 저자는 자신의 주장/가설을 입증하는 타당한 근거나 실험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근거/실험증거는 가급적 다른 사람의 연구를 인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저자 스스로 획득한 증거 자료여야 한다.
⑽ 저자는 자신의 주장/가설이 갖는 이론적 시사점, 다른 현상에 대한 보편적 설명 가능성, 실용적인 응용 가능성 등을 논문 속에 적절하게 포함시켜 논의해야 한다.
⑾ 학술 논문은 어법에 맞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국어/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학술지 작성 스타일'에 맞는 참고문헌 목록을 포함해야 한다.
⑿ 특히, 논문 본문 중 인용된 참고문헌은 100% 참고문헌 목록에 등장하며, 참고문헌 목록에 등장하는 문헌은 하나도 빠짐없이 본문 중에 인용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투고된 작품이 즉시 출판 가능한 수준이려면 아래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⑴ 작품 속에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분명한 주제/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⑵ 작품의 주제/메시지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성찰과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
⑶ 작품의 구성 요소 중 작가의 주제/메시지를 실현하는 데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⑷ 작가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작품의 모든 구성 요소가 작품의 주제/메시지를 전달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⑸ 작가는 시점의 전환, 서술, 묘사, 대화, 상징 등 문학 작품의 형식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기술에 능통해야 한다.
⑹ 작가의 개성을 드러내는 자신만의 문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⑺ 평범한 독자가 충분히 흥미를 가질 만큼 재미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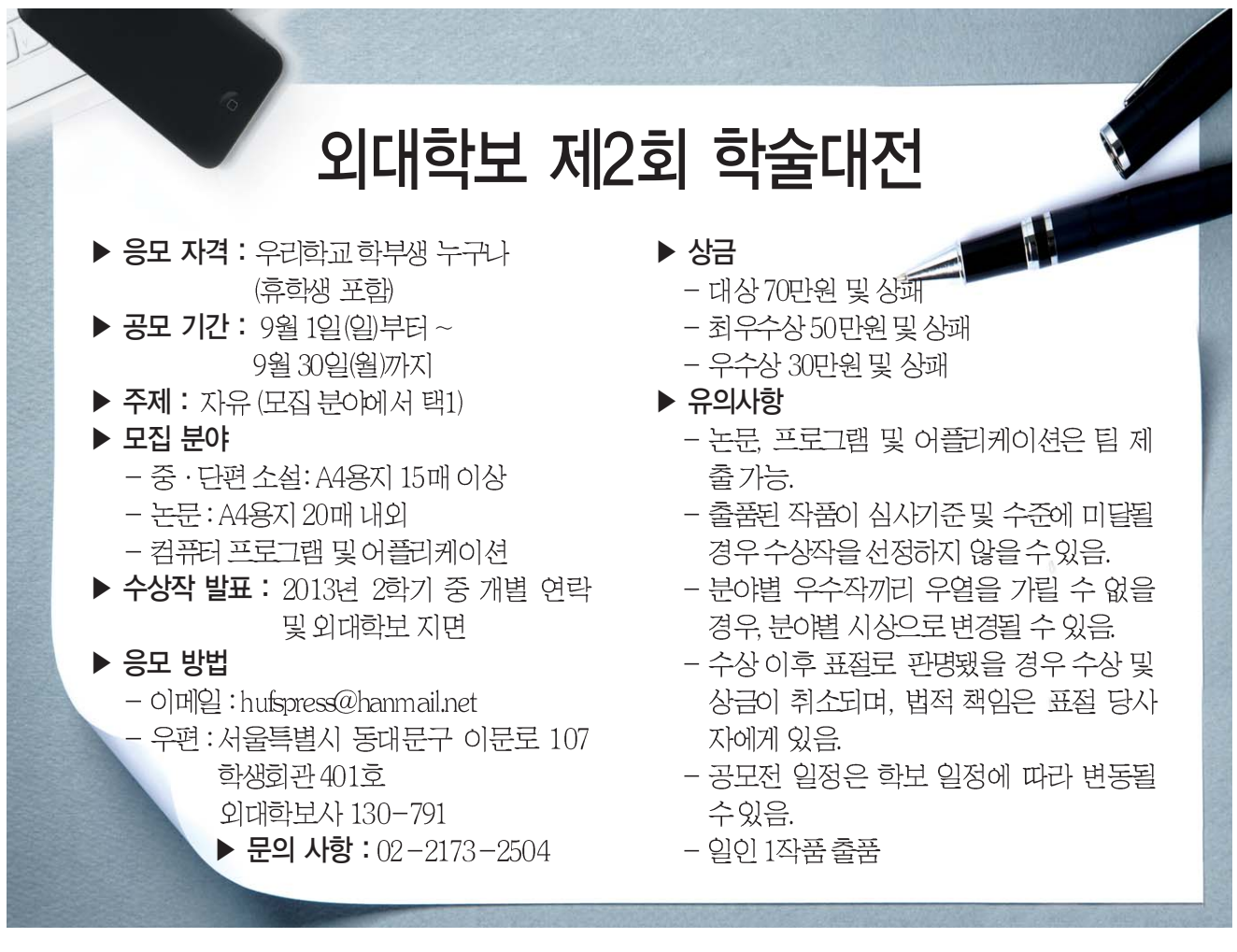
우리는 이상의 기준을 5점 척도의 심사표로 만들어 심사위원들께 제공하였다. 여러 분야의 심사위원들로부터 수집한 결과는 놀라울 정도의 일치도를 보였다. 동일한 논문을 심사한 두 사람의 심사위원은 약속이라도 한 듯 비슷한 점수를 매겼고, 엇비슷한 수준의 논문들은 분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점수를 받았다. 이는 분야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술 논문이나 문학 작품이 갖춰야할 공통의 조건을 심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객관적 심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는 분명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야할 사안이지만, 적어도 금번 학술대전에서 채택한 심사기준은 향후 학술대전의 심사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기에, 2013년 이후의 외대 학술대전 출품을 진지하게 계획중인 학생들은 반드시 위에 정리한 심사기준을 숙지하여 작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표절의 문제를 언급해야겠다. 금번 학술대전에 제출된 10편의 작품 중, 입상작으로 선정되었던 논문 한 편이 표절로 판명되어 최종 수상작에서 제외되었다. 이 학생의 경우,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된 다른 사람의 논문을 광범위하게 베낀 경우였는데, 저자 본인은 참고문헌 목록에 밝힌 논문을 본문 곳곳에 복사해 붙여 넣는 것이 허용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 본 심사평에서 표절 문제를 자세히 논하기는 어려우나, 학문의 길을 가려는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표절의 요건을 이해하고, 자신의 논문에 독창적인 자신만의 생각을 글로 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논문 심사 과정에서 표절 문제는 해당 분야 전문가이신 심사위원 교수님께 의견을 묻는 수준을 넘어, 학보사 차원에서도 여러 도구를 활용하여 두 번, 세 번 반복하여 확인하고 있으니, 향후 외대 학술대전에 작품을 제출하려는 학생들은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심사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제1회 외대 학술대전'의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앞으로 외대 학술대전에 응모하려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기를 바란다.

범주	#	평가질문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닌편이다	③ 보통(불확실)	④ 맞는편이다	⑤ 확실히맞다
논문 주제	1	이 논문은 교과서의 한 챕터 또는 대중 잡지의 기획 기사처럼 '여러 소주제를 포함하는 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2	이 논문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응집성	3	이 논문에 포함된 문장, 표현, 도표, 그림이 논문 주제와 관련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4	이 논문에 포함된 모든 문장, 표현, 도표, 그림이 논문 주제와 논리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전 연구 조사	5	이 논문에는 '이전 문헌 리뷰'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습니까?					
	6	이 논문의 주제는 '이전 문헌'이 존재하지 않을 만큼 '완전히 새로운 연구 주제'로 보입니까?					
	7	이 논문의 '이전 문헌 리뷰'는 논문 주제에 대한 배경 설명이거나 논문 주제와 관련된 일반적 논의입니까?					
	8	이 논문의 '이전문헌 리뷰는' '구체적 연구 주제에 대한 다른 학자들의 구체적 가설'입니까?					
	9	이 논문은 '이전 연구에 대한 논리적 비판'을 적절하게 포함하고 있습니까?					
주장에 대한 논증과 implica-tions	10	이 논문에는 '다른 학자들의 과거 주장과 확실하게 다른 저자만의 주장/가설'이 들어있습니까?					
	11	이 논문에 포함된 '저자만의 주장/가설'은 '저자가 언급한 이전 연구의 문제점'을 적절하게 극복/해결하고 있습니까?					
	12	저자는 자신의 주장/가설을 입증하는 근거나 실험증거 등을 (타당한 것으로만) 몇 개 정도 제시하고 있습니까?	없음 ( )	1개 ( )	2~3개 ( )	4개 ( )	5개이상 ( )
	13	저자가 자신의 주장/가설을 입증하는 데에 사용한 근거나 실험증거는 (다른 사람의 연구를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 저자 스스로 획득한 증거 자료들입니까?					
	14	저자는 자신의 주장/가설이 갖는 이론적 시사점, 다른현상에 대한 보편적 설명 가능성, 실용적인 응용 가능성 등 implications에 대한 논의를 논문 속에 적절하게 포함시켰습니까?					
기타 형식 요건	15	이 논문은 어법에 맞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국어/영어)로 작성되었습니까?					
	16	아 논문은 '학술지 작성 스타일'에 맞는 참고문헌 목록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17	이 논문 본문 중에 인용된 참고문헌은 100% 참고문헌 목록에 등장하며, 참고문헌 목록에 등장하는 문헌은 하나도 빠짐없이 본문 중에 인용되고 있습니까?					

* 다음 페이지에 주관식 문항 2개가 더 있습니다

▲학술논문 심사표



외대학보 제2회 학술대전

▶ **응모 자격 :** 우리학교 학부생 누구나 (휴학생 포함)
▶ **공모 기간 :** 9월 1일(일)부터 ~ 9월 30일(월)까지
▶ **주제 :** 자유 (모집 분야에서 택1)
▶ **모집 분야**
- 중 · 단편 소설: A4용지 15매 이상
- 논문 : A4용지 20매 내외
- 컴퓨터 프로그램 및 어플리케이션

▶ **수상작 발표 :** 2013년 2학기 중 개별 연락 및 외대학보 지면
▶ **응모 방법**
- 이메일 : hufspress@hanmail.net
- 우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학생회관 401호 외대학보사 130-791

▶ **문의 사항 :** 02-2173-2504

▶ **상금**
- 대상 70만원 및 상패
- 최우수상 50만원 및 상패
- 우수상 30만원 및 상패

▶ **유의사항**
- 논문, 프로그램 및 어플리케이션은 팀 제출 가능.
- 출품된 작품이 심사기준 및 수준에 미달될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분야별 우수작끼리 우열을 가릴 수 없을 경우, 분야별 시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수상 이후 표절로 판명됐을 경우 수상 및 상금이 취소되며, 법적 책임은 표절 당사자에게 있음.
- 공모전 일정은 학보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일인 1작품 출품

외대학보 www.oedaehagbo.com

창 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 철
편집인 겸 주간 전종섭
편집장 문나윤 **부 장** 홍규원
차 장 박준서 신민지 양재상 이민정 이은결 임채윤
조 교 이현주 정진경
제 작 ㈜경보기획 **인 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트위터 @hufspress1955

외대학보 기사에 실릴 인터뷰이를 모집합니다.

기사 〈취준생들〉과 〈에코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과 환경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인터뷰이로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분들은 외대학보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newhufspress)계정으로 참여 신청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군인들이 삽질을 하며 악에 바쳐 노래한다.

제설 제설 삽을 들고서
dig down dig down, raise your shovels high
제설 제설 넉가래로 밀어
dig down dig down and clear the snow below
끝이 없어 이 빌어먹을 눈
there is no end to this accursed snow
제설 제설 넌 2년 남았어
dig down, you still have two service years to go
하늘에서 내리는 폐기물
the sky is laying waste on us
제설 제설 내일도 내리지
dig down dig down, it's snowing tomorrow too

이는 유투브에서 오백만 넘게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 ‘레밀리터리블’의 한 장면이다(2월 28일 기준). 풍부한 성량의 노래, 매끄러운 장면 전환, 재치 있고 공감 가는 가사, 생생한 연기력은 이미 아마추어의 솜씨를 넘어섰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영상을 만든 사람들은 현역 군인들이다. 영화 ‘레미제라블’을 패러디해 불과 100만원의 제작비로 만들어진 이 13분짜리 동영상은 실제 레미제라블 출연 배우인 러셀 크로우가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하고 여러 언론에서 기사화하는 등 국내와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한국 군인들의 애환을 전 세계에 퍼뜨린 이 창작물의 제작자는 우리학교 졸업생인 김경신(사회 · 언정 05) 중위이다. 그는 레밀리터리블 제작 이전에도 UN 단편영상 공모전 대상, 국가브랜드위 유투브 UCC 공모전 대상 등의 수상 경력을 지닌 실력자다. 지난 달 25일(월) 현역 공군인 그를 만나기 위해 충남 계룡으로 내려갔다. 창이 커 햇살이 시원하게 들어오는 카페 안에서 군복을 입고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인터뷰에 응한 그는 영상 제작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계룡에서 촬영해온 그의 이야기를 같이 들여다보자.

글 · 사진 임채윤 기자 86healing@hufs.ac.kr

-유투브에 들어가 ‘인기 동영상’을 클릭했더니 김경신군이 제작한 ‘레밀리터리블’이 가장 먼저 나오더라. 요새 어마어마한 인기를 실감하는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지난주까지는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가 쇄도해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다. 이번주부터는 레밀리터리블을 검토하려고 한다. 이는 제작에 있어 컨셉잡기부터 홍보까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성공적이었다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외부 회사와 공동으로 연구해 뽑아내는 작업이다. 사실 제작자로서 레밀리터리블이 아주 잘 만든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해주시니 기분이 좋다.

-수상 실적을 보니 레밀리터리블 제작 이전에도 영상 제작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 군대에 들어오기 전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궁금하다.

영상제작에 발을 들이기 시작한 것은 새내기 때 들어간 ‘방송학회’를 통해서였다. 학과에 속한 학회였는데,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단 시작했다.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봉사활동 등의 기회를 통해 방학 때마다 외국으로 나갔다. 카메라를 들고 인도, 러시아, 몽골, 홍콩, 중국 등지를 다니며 영상을 찍었다.

대학 3학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배낭을 메고 세계여행을 나섰다. 이집트부터 시작해 지중해를 쭉 돌고, 유럽을 거쳐 중남미의 멕시코까지 갔다. 그 당시에는 실력이 부족했기에 영상들이 많이 거칠었지만 그 경험이 지금 나의 든든한 기반이 된 것 같다. 또한 막연하게 ‘영상제작을 하고싶다’는 마음에서 ‘영상에 이런 내용을 담고 싶다’고 생각을 구체화하게 된 것도 여행을 통해서였다. 이집트의 하류층은 분쟁으로 인해 이주해 온 수단 노동자들이다. 가난한 수단 부모를 둔 이주민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있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등지에 걸쳐있는 분리장벽, 독일의 베를린장벽 등을 보고 인간사의 어두운 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 내가 만드는 영상에 어떤 것을 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것이다.

그 시작으로 대학 4학년 때 UN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에 비핵화와 무기감축을 주제로 작품을 만들어 출품했다. 2010년 입대 바로 직전에는 국가브랜드위 유투브 UCC 공모전에도 작품을 출품했다. 대상을 받았다는 소식은 훈련소에서 친구의 전화를 통해 들었다.

-대학 때부터 ‘영상제작’이라는 한 길을 판 듯하다. 영상제작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고등학교 때 신문을 보다가 세렝게티 초원을 다룬 다큐멘터리 제작자의 기사를 읽게 됐다. 그 제작자가 답답한 사무실과 방송국의 정형화된 시스템 속에서 지쳐가던 중 세렝게티라는 대자연에 나가게 된 내용의 기사였다. 그는 광활한 자연의 흙냄새와 아름다운 풍경들 속에서 엄청난 감동을 느꼈고, 시청자들에게도 그 감동을 똑같이 전달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손질 할 여유도 필요도 없어 수염이 잔뜩 난 야생적인 그의 사진을 보고 “야! 이 사람 정말 살아있구나!”라고 감탄했다. 산다는 건 내가 사는 이 자연의 모습을 온몸으로 느끼고 그 안에서 인간으로 사는 나 자신을 보는것이라고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장 캐논 AE1라는 조그만 필름카메라를 구입했다. 일단 사진부터 찍기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었다. 그 후 대학교 방송영상학과에서 공부하며 ‘영상을 만들어 사람들과 의미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다. 세상을 담아 전달해주는 ‘매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직접 겪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는 매체를 통해 인지한다. 레밀리터리블의 경우에도 군대를 직접 겪지 못한 사람들은 이 영상물 안의 군인들의 모습을 통해 군대의 이미지를 만들어간다. 특히 현대인들은 아주 조그만 시간의 틈에도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관찰하기 때문에 매체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 산다는 건 광활한 자연 느끼고
> ‘인간’으로서의 내 존재 보는 것
> 세렝게티 다큐 제작자 모습에서
> 야! 이 사람 정말 살아있구나!

-그렇다면 영상이라는 매체 안에 담고 싶은 철학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평화 △인권의 가치 △자연의 모습 △환경보호 등을담고 싶다. 내가만든 영상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

하지만 영상에 철학을 담고, 내 생각을 주입하려 하면 사람들이 별로 보지 않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스타 캐스팅을 하거나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장면을 사용해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영상도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대한 제작자와 시청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담백하지만 재밌게 창작하고싶다.

그래서 ‘철학을 담으면서 어떻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한다. 좋은 작품을 ‘만들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 좋은 작품을 사람들이 ‘보게’해야 된다. 따라서 나는 제작을 할 때 영상에 대한 고민을 넘어,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수반돼야한다고 생각한다.

-군대라는 곳은 상식적으로 꿈을 이루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레밀리터리블이라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 했는지 신기하다.

사실 군대는 생각보다 열악하지 않다.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좋은 장비도 많고 인력도 풍부하다. 레밀리터리블 첫 장면에 눈 치우는 엑스트라를 30명이나 동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사실 나는 군대에서 오히려 기회를 얻기도 했다. 공군에 ‘블랙이글스(Black Eagles)’라는 에어쇼 팀이 있는데 생긴 후 처음으로 영국에 가서 공연을 하게 됐다. 그 때 영상촬영을 하고 보도 자료도 쓰며 언론대응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했다. 그런 사람으로 딱 내가 발탁돼 영국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며 현지인들과 같이 일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그곳에서 만든 영상을 출품했고 뉴욕 필름 페스티벌에서 상을 타게 됐다.

-이야기를 듣다보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떠오른다. 마지막으로 꿈을 이루고 싶은 재학생 후배들에게 한 마디 해 달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맞다. 따라서 학교 다닐 때 가장 중요시해야 할 일은 ‘내공 쌓기’ 같다. 나 역시 레밀리터리블 작업을 하면서 학교 다닐 때가 많이 떠올랐다. ‘그 때 배운 게 헛배운 게 아니었군’이라는 생각을 했다. 요새는 인지도가 높은 학교에 입학해 좋은 인맥을 쌓고, 교수님에게 잘 보여서 내 앞길을 개척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학생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순수한 꿈’과 ‘실력’이다. 학과 공부 역시 단순히 학점을 위해서라기보다 내 실력을 쌓기 위해 열심히 하다보면 어느새 사람들이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줄 것이다.

또한 우리학교는 외국어를 공부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외국어 한두 개 정도 익혀놓으면 참 좋다. 밖에 나왔을 때 많은 도움이 된다. 시선을 국내에만 두지 말고 세계로도 돌렸으면 좋겠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에게는 신문 한 면이 부족할 만큼 이야기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이번 해 6월에 전역하면 영국의 대학원에 입학해 다시 학생으로 돌아간다는 그는 앞으로 국제기구나 NGO 내 홍보부서에서 영상제작자로 일하고 싶다고 한다.

이상을 가지고 순수하게 몰입하면서도 현실에 대한 고찰을 멈추지 않는 그의 모습에서 레밀리터리블이라는 멋진 작품이 나온 이유가 보였다. 기자가 계룡에서 촬영해 온 이야기는 여기까지지만, 김경신군은 지금까지의 영상보다 지금부터의 영상이 더 기대되는 인물인 듯하다.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임채윤 기자

어느 운 없는 사람의 크리스마스

지난 해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이야기다. 성탄전야에 기자는 이문동에서 친구들과 밤새 술을 마시고 하루 종일 자다 알바를 하러 나왔고, 크리스마스는 술이 덜 깨 멍하니 편의점에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알바가 끝나갈 무렵 띵동! 하고 카카오톡 알림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편집 장이었다. "채윤아 애들 역할 배분해서 최대한 빨리 취재 시작해줄래? 유가족들 인터뷰도 필요해." 유가족들? 불안이 엄습해왔다. 확인하니 우리학교 노조원이 크리마스이브에 목을 매고 자살했다는 소식이었다. 정신이 퍼뜩 들었다. 방학 중이었기에 당장 취재를 할 수 있는 기자는 4명이었다. 장례식에 갈 팀과 학교에 갈 팀을 나눴다.

다음 날 분당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을 찾았다. 빈소 입구를 바로 눈앞에 두고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망설였다. '장례식 분위기에서 어떻게 사진을 찍지?'

눈이 벌게진 유족에게 사진 찍어도 되냐 묻고 있는 내가 너무 싫었다. 그러나 취재를 잘 하는 게 그들을 위하는 일이라 믿으며 셔터를 누르고 인터뷰를 했다. 그런데 장례식장 안에 있는 노조원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 바로 지난주에 총장이랑 식사도 같이 하면서, 잘 해보자고 으싸으싸 했거든…"

그들은 "이 일은 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지 학교와의 갈등 때문은 아닌 것 같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저녁에 다시 한 번 사건이 터졌다. 빈소를 지키던 다른 노조원 분이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돌아가신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장례식장에서도 노조원들의 반응은 같았다. 학교와의 마찰 때문에 돌아가신 것은 아니라는 것. 언론에서 괜히 왜곡할까 걱정된다는 것. 학보사로 돌아와 취재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참 난감했다. 이 일을 기사화하는 게 맞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는데 괜히 사람들의 이야깃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도대체 이 분은 왜 하필 크리스마스이브에 토끼 같은 아들딸을 남겨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

지난 외대학보를 꺼내 들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노조파업과 관련된 기사를 전부 찾아 읽었다. 인터넷도 샅샅이 뒤졌다. 밤새 우리학교 노조파업과 관련된 정보라면 다 찾아 읽었다. 내일의 취재를 위해 조금이라도 자려고 누웠는데 눈물이 찔끔 나서 훌쩍거리다 결국 펑펑 울었다. 노조파업 당시 언론, 학교, 심지어 학생들까지. 아무도 노동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몇 년간의 소송 끝에 법은 노조가 옳다고 판결 내렸지만, 학교로 돌아와서도 노조원은 암묵적인 불이익을 당했다. 결국 그는 긴 싸움의 끝에서 더 이상의 희망을 보지 못한 것일까.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바뀐 것이 없는 현실에 절망한 것일까.

자살의 뜻이 '스스로를 죽인다'지만 사회가 행하는 살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의 유서에는 세상에 대한 아무런 원망 없이 그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뿐이었다. 세상에 대한 원망을 표출할 때 남은 사람들이 얻을 불이익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의 일이 남의 일일까. 운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남의 일이겠지만, 운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비슷한 일이 닥칠 수 있다. 삼신할머니의 운을 얻지 못한 사람들도 살기 좋은 세상을 간절히 희망하며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모교 외대의 눈부신 성장을 바라보며

동문의 소리

진수남 (프랑스어과 81)
한국관광공사
국외여행서비스 센터장

지구촌 곳곳에서 외대 동문들의 활약상은 실로 눈부시다.

외대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재의 산실임이 분명하다. 오바마 미국대통령 등도 외대를 방문하여, 많은 감동을 안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다.

2000년대 중반에 한국관광공사 파리지사장으로 근무했을 적이었다.

한국관광공사 파리지사의 관할국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베네룩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모나코, 모로코 등 총 38개국에 대한 한국관광 마케팅을 관할국 현지에 진출해있는 대사관 등 정부기관, 주재상사 등과 더불어 진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2007년 3월 모로코의 수도 라바트에서 한국대사관과 더불어 태권도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다. 당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도 태권도대회는 큰 성황을 이뤘는데. 입상한 선수들뿐만 아니라, 본선 탈락한 선수들의 가족과 친구들마저도 함박웃음과 함께 모두 "코리아"를 연호하는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다.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에서도 태권도를 통해서도 국가이미지가 크게 선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당시 모로코 현지에 대사로 계셨던 유정희 대사(외대 프랑스어과 졸업, 프랑스소재 유네스코 대표공사 역임, 외시 수석합격)께서 다소 심한 감기에도 불구하고, 식사도 거르신 채 이른 아침부터 행사에 임하시는 모습에서 국위선양을 위한 열정과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외대인 특유의 소통의 정신이 진정으로 느껴졌다. 이것이 항시 젊은 가슴을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한다.

이렇게 외대 동문들은 5대양 6대주에서 자신의 잠재능력을 마음껏 발산하며, 국제사회에 다각적으로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

이제 외대는 외형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새 시대에 걸 맞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더욱더 자긍심을 고취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예컨대, 한국의 앞선 의료기술을 더욱더 키울 수 있는 국제적 감각을 갖춘 전문 의료인력 배출과 국내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외대에 △의생명공학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국제한의학대학 △스포츠재활의학과 △국제의료관광디자인학과 등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를 호흡하는 젊은 가슴"으로서 국제사회에 더 크게 기여하려면 동문들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재단에서도 더 큰 시각으로 더 높이, 더 빠르게 이 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학과의 설치를 검토하는 등 창의적인 발상과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모교 외대의 눈부신 성장을 바라보며, 이제 질적 성장에 눈 돌려야 할 때이다.

일시정지

넌 졸업 언제 할래?

▲학위수여식이 있었던 지난 달 22일(금) 서울배움터에서 한 졸업생이 아기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사람들이 졸업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기는 카메라가 아니라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임채윤 기자 86healing@hufs.ac.kr

흡산의 소리 김민수(글경 · 경영 11)

젊은 외대인의 슬픔

친구여, 나는 지금 소용돌이와 같은,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다네.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2년 전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값진 기회를 잡게 되었었지. 행복에 젖어 정문까지 뛰어갔던 내 모습을 자네는 기억하는가. 솔직하게 말해 당시의 외관은 아름답다고는 차마 표현하기 어려운 모양새였네. 본관은 하늘 높이 치솟아있었지만, 그 주변은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지. 아마 외부인이 본다면 시끄러운 공사현장으로 치부해 버리고 그냥 지나쳤을걸세. 하지만 나는 그런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네. 내 눈에는 다른 하나만이 보였다네. "외대를 보면 세계가 보인다"라는 문구가 바로 그것이었네. 그것을 바라본 순간부터 애타는 사랑이 시작되었음을 느꼈다네. 자유로워 보였던 학풍을 체험하고, 다채로운 경험의 소유자들을 만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고 나는 겨울 밤을 지새웠었네. 나 또한 나 자신에게 떳떳하고, 남들을 전율케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었지.

여전히 교내를 걸어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 나는 행복하다네. 그런데 이제는 모호함이 같이 느껴진다는 것이 문제네. 사랑이 한쪽으로만 흐르는 짝사랑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네. 자네에게 투정을 부린다고 해서 당장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것에 양해를 구한다네. 학교 당국과 소통의 부재, 졸속으로 처리되는 학생자치활동, 그리고 시설의 낙후 등의 문제점들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겠다네.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을 사로잡은 이 대상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네. 난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이 모든 것을 선호대상의 변화 탓으로 돌린다거나, 다른 사람, 다른 집단, 또는 계획 탓으로 돌린다면 마음이 편해지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너무 비참해질 것 같아 시도조차 하지 못하겠네. 나는 이 대상이 다시 소생할 것을 믿고 있다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듯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원들끼리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해나가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네. 그냥 우울한 기분에 축 처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뒤로 퇴보하고 사라질 수밖에는 없다네.

내 말을 들어줘서 고맙네, 친구여. 더 고민을 해봐야겠네

외대학보 독자위원회를 모집합니다

2013년 1학기 동안 외대학보를 비평해 주실 독자위원을 모십니다.

▶**활동내역** 2013년 1학기 외대학보 957~961호 비평 후 비평문 작성(총 6회, 개인 당 2회)
▶**모집단위** 글로벌배움터 3명 / 서울배움터 3명
▶**모집기간** 3월 14일(목)까지
▶**지원방법** 학교 공지사항에서 지원서 다운 또는 학보사에서 지원서 수령 후 학보사에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글로벌배움터 86hufspress@hufs.ac.kr
서울배움터 86healing@hufs.ac.kr
▶**지원자격**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등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외대 구성원
▶**활동혜택** ①비평문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 지급
②외대학보 독자위원 수료증 지급
③기념품 지급
▶**문의** 글로벌배움터 신민지 기자 010-4002-0299
서울배움터 임채윤 기자 010-9186-1569

독자위원이 써 주신 비평문은 매 호 외대학보에 실립니다.
학보도 꼼꼼히 읽고, 사람들과 만나 토론하고 싶은 지식인을 환영합니다.

비 둘 기 칠 판

비둘기칠판 보내는 곳
이민정 기자 86cosmos@hufs.ac.kr
010-8729-9406

글로벌배움터에서 온 편지

To.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어학과 백민주

민주야 창원에서는 잘 지내고 있지? 학교 오려고 차곡차곡 짐 싸고 있다 하니까 곧 개강이란게 실감이 난다. 동아리연합회에서 회장과 홍보국장으로 만나 사내연애를 시작한 것이 벌써 1년이 넘어가는구나. 1년 동안 나는 학군단, 너는 4학년 졸업반이라서 쉴 새 없이 바쁘게 지내온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너와 틈틈이 있었던 추억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임용고시를 봐서 선생님이 되는 것보다 전공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려는 것에 뜻을 두어서 당당히 대학원 진학을 선택한 모습이 참 보기 좋아. 학과 조교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대학원 공부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번 한 해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어! 나도 1년 동안 졸업준비 열심히 해서 좋은 마무리, 그리고 멋진 장교임관 할게! 2013년에도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열심히 달렸으면 좋겠다!

▲ 받는 이 백민주

From. 김희수 (공과 산업경영 10)

서울배움터에서 온 편지

To. 김한별(서양어 스페인어 11)

♥별아 Hola. 나리언니야! 별이가 스페인으로 교환학생을 간지 이제 한 삼 주 정도가 되어가는 것 같다. 너의 안부도 묻고 곧 한국의 정취도 그리워질 너에게 교내 신문을 보내고자 이렇게 학보를 빌려 너에게 편지를 써^^ 언니가 재수를 하기위해 서울에 상경해서 별이네 집에서 머물며 공부를 했기 때문에 힘들고 외로울 적마다 곁에서 함께 이야기했던 네가 참 친동생 같이 느껴져. 오히려 나보다도 의젓하고 통찰력 있는 너의 모습에 때론 네가 더 언니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지^^ 저번에 카톡으로 간장이 없어서 한국요리를 하는데 애 먹고 있다고 하길래 그 곳으로 간장을 보낼 계획을 하고 있어. 히히 장집사님께서 그 어려움을 알고 간장을 보내시기 전에 내가 먼저 보내고 싶다. 별아 그럼 건강히 스페인에서의 유학을 잘 마치길 기도해^^.

Dios te bendiga!

▲ 받는 이 김한별

From. 김나리(동양어 몽골어 12)

◆외대공감 – 스티커를 붙여라!

이번호부터 외대학보에 외대공감이라는 코너가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외대공감은 불특정 다수의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아주 사소한 질문을 묻는 설문 코너입니다.

이번호의 주제는 <두근두근 새내기, 내가 바라는 1학년 생활은?>으로 지난 달 20일(수)에 입학식이 있었던 올림픽홀에서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위 b. 장학금을 노린다, 우수한 성적 – 54표
· 2위 d. 젊다면 경험하라, 다양한 대내외 활동 – 50표
· 3위 c. 친구가 짱이야, 폭넓은 교우관계 – 44표
· 4위 a. 대학가면 생긴대, 핑크빛 연애 – 38표

다음호(978호) 설문조사의 경우 이번 달 4일(월)부터 7일(목)까지 4일 동안 서울배움터는 학생식당 게시판에서, 글로벌배움터에서는 승차장 게시판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서울배움터 국제학사 401호 담당자 : 이은결 기자 (010-7740-3117)
· 글로벌배움터 학생회관 212호 담당자 : 신민지 기자 (010-4002-0299)

■더 많은 의견을 보내고 싶을 때는 위의 담당기자를 통해 연락주시면 됩니다.

사설

논문 쓰는 대학생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80% 선을 지키고 있다. 유럽의 대학 진학률이 30-40%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지나치게 높은 감이 있다. 실제로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20여 년 전 고졸자들이 채용되던 자리에 대졸자나 심지어 대학원 졸업자가 지원하는 일까지 생기는 것도 어찌 보면 높아진 대학 진학률의 부작용일 것이다.

대학 진학률의 또 다른 부작용은 대학 교육의 전반적 수준 하락이다. 이미 국민정서 속에서 대학은 고급 학문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그냥 졸업장을 따는 곳으로 변하였다. 학생들은 고급 이론을 가르치는 어려운 과목의 수강을 기피하고, 속된 말로 '빡센 수업'일수록 강의 평가 점수도 낮게 나온다.

이런 분위기에서 대학생들에게 학문적 가치가 있는 '독창적 연구 논문'을 쓰라고 요구하는 것은 세상물정 모르는 교수들이나 하는 소리이고, 어느 학부생이 대단한 학문적 업적을 내보겠다고 방학을 반납하고 연구에 빠져든다는 것도 상상하기 힘들다.

제1회 외대학보 학술대전 공고가 나갔을 때, 많은 학내 구성원들은 학부생이 어떻게 논문을 쓰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사학과의 김상일 군은 17-18세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역할을 밝히는 연구를 훌륭하게 수행하였고, 영어과의 정원필 군은 한국인 머릿속의 파생명사 저장 방식을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으며, 컴퓨터공학과의 장영걸, 전병환 군은 마이크로비드 구조를 이미지 스캔 기술로 자동 식별하는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번 학술대전은 대학 진학률 80% 시대에 우리 학교가 추구해야할 고등 교육의 역할을 분명히 밝히고, 학부생도 학문적 가치가 있는 '독창적 연구 논문'을 쓸 수 있음을 입증한 중대한 사건이다. 제1회 학술대전을 계기로 우리 학교에 '빡센 수업'이 늘어나고, 학문 연구에 몰입하는 학부생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현실을 향해 있는 눈

지난 달 25일(월), 제 18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의 첫 출발은 외교사절 및 일반인 등 7만여 명이 주목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번 취임식은 이례적으로 식전 행사를 갖고 사물패와 대중가수 등 다채로운 공연을 구성했으며 역대 대통령 취임식 중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이뿐 아니라 취임식 연설은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며 한마디 한마디가 향후 5년을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안으로 손꼽아지고 분석됐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이 말해주듯 이번 취임식을 향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비단 시작이기에 주어지는 것이었을까. 하지만 시작에 대한 반짝 관심보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펼칠 정치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는지가 장차 우리나라의 큰 영향을 미친다. 결국 현실에 얼마나 국민이 눈을 두느냐에 정치에 성패가 달렸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학내 정치도 마찬가지다. 취임식이 따로 없는 학내 정치 특성상, 선거를 통해 새로운 학생대표단이 모습을 드러낼 때 반짝 관심이 집중된다. 누가 구성원의 대표가 됐을까. 내가 행사한 표가 대표를 만들었나에 대한 관심으로 선거의 결과에 주목한다. 하지만 이후 내가 뽑은 학생대표단이 무엇을 할 것인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더 필요하다.

본지는 이번호에 학내 정치에 대한 사안인 서울배움터의 보궐선거 기사와 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이후 중운위) 회의록 공개를 다뤘다. 지난 해 서울배움터는 투표율 미달로 무산돼 총학생회의 학생대표단이 공석으로 3월까지 이어졌다. 앞으로 한 달여 기간 동안 학생들은 학생대표자를 세우기 위해 후보자와 그 공약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후 선출된 대표자와 학내정치를 향한 관심이다. 이는 당선과 시작,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 때문에 단과대 학생회장들과 총학생회장단 등으로 구성된 중운위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중운위는 학내 중요한 사안에 대해 논하고, 학교의 운영을 도맡는 학내 정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시작과 끝, 결과에만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닌 지금 현재진행중인 과정에 관심을 둬야하는 때다. 새 학기 새 출발 선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으로서 학내 정치에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입을 벌리는 것이다.

IEEE English for Engineering

IEEE
Advancing Technology for Humanity

공대생들을 위한
영어 학습 프로그램

영어와 전공,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기 힘든 공대생들을 위해
IEEE와 Cambridge University Press가 공동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TOEFL과 같은 구성으로 공학영어를
쉽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본인의 수준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도록
Introductory, Intermediate, Advanced
세 가지 Level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검색창에
"IEEEXplore" 를 치거나,
http://english.ieee-elearning.org/
URL에 접속하시면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IEEE
Authorized Dealer in Korea

kitis® 키티스産學研情報社
KITIS Info. Company
대표 홍영표 (Arabic 81)

87th 수습모집

당신, 아직 빛나본 적 없다면
그러나 패기가 있다면

2012년 3월, 우리학교에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외대학보는 오바마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취재 후, 그 역사를 생생히 기록했습니다.

2012년 5월, 우리학교 글로벌배움터 축제에 국제가수 싸이가 찾아왔습니다.
외대학보는 유일하게 싸이와 같이 무대에 올라 그의 땀방울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2012년 10월, 우리학교에서는 전국 최초로 대학 총학생회 공약 평가 운동이 있었습니다.
외대학보가 한국 매니페스토 협회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과 함께 진행한 운동입니다.

2012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우리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외대학보 주도로 전국의 대학 언론사들이 모여 대학생의 시선에서 후보자를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외대학보에서는 87번째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당신

아직 빛나본 적 없나요?

괜찮습니다.

그대의 잠재된 가능성을 외대학보가 발굴해드리겠습니다.

Journalist & Specialist

외대학보에서는 패기 있는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지원자격** 학번 관계 없이 1학년 ~ 2학년 1학기 재학생
- **모집기간** 3월 21일(목) 오후 3시까지 / 23일(토) 면접 / 24일(일) 합격 공지
- **지원방법** 학보사에서 지원서 수령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학보사에 제출 (서울 국제학사 401호/글로벌 학생회관 212호)
- **문 의** 편집장 문나윤 010-2029-2330

외대학보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EEKLY